

# 새로운 룰: 저탄소 경쟁의 시작

Korea 250 Climate Change Report 2014

28 Octorber 2014



Korean Partner to CDP and Report Writer



Main Report Sponsor



Sub Report Sponsor



Official Partner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SIF) www.kosif.org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rea Sustainability Investing Forum · 이하 KoSIF)은 사회책임투자(SRI)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SRI연구 · 개발, 홍보 · 확산, 정책개발 · 입법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기후변화대응을 확산하기 위해 CDP한국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Korean Advisor



EFC www.ef-c.co.kr

이에프컨설팅은 1995년 환경경영컨설팅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점차 사업영역을 넓혀 지속가능경영 및 지속가능금융 자문 분야와 배출권거래제 대응 전략, 녹색건축 사업화 컨설팅 등 지식의 산업화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2003년부터 국내외 글로벌 자산운용사,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평가·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표적인 글로벌 지속가능금융 이니셔티브 활동인 UNEP FI, UN PRI, CDP 등에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해왔다.



CDP Korea 250 Climate Change Report 2014

Writer: 김태한, 이종오, 김선용, 김주원

Design & Publication: 화소

# **Contents**

발간사 - 장지인, 위원장/CDP한국위원회	02
CEO Foreword - Paul Simpson, CEO/CDP	03
발간축사 - 홍일표, 대표의원/국회CSR정책연구포럼	04
Investor Commentary	05
Korea Leaders	06
기후변화 대응과 시장성과	08
배출권거래제 & CDP	10
그룹사별 기후변화 대응 현황 분석	12
Guest Interview	15
섹터별 분석	16
주요통계	43
부록 I. Investor members and signatories	48
부록 II. CDP Korea investor signatories	54
부록 Ⅲ. CDP 2014 그룹사별 참여현황	55
부록 Ⅳ. 그룹사별 배출권거래제 및 CDP 대상 기업 배출량	56
부록 V. 자발적 참여기업	57
브로 VI Global Kay Trands Summany	58



#### Important Notice

본보고서내의 자료는 CDP에 통보 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고서 내의 CDP 또는 공저자의 자료를 이용한 재편집 또는 재판매 권한을 부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본 보고서상의 자료를 재편집 또는 재판매 를 원할 경우, 반드시 CDP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보고서는 CDP 2014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응답 데이터 및 분석을 비탕으로 하고 있으며, CDP(또는 본 보고서의 공저자)는 보고서상의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대변하거나 (명시적 또는 암묵적)보증하지 않습니다. 전문 가의 조언 없이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만을 비탕으로 익사결정을 내리지 말기를 권고하며, CDP 및 본 보고서의 공저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어떠한 주의 의무 및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보 고서내의 모든 정보와 전망은 리포트 작성 시점의 CDP 및 공저자의 판단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경제, 정치, 산업 그리고 기업의 상황 변화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 된 외부원고는 해당저자 및 기관의 개 별적 의견이며, CDP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CDP, 협력기관, 제휴 회원사 및 해당기관의 주주, 구성원, 파트너, 임직원들은 본 보고서에서 언급된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 내에 언급된 기업의 주식은 일부 주 또는 국가에서 구매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일부 유형의 투자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의 가치와 수익은 환율 변동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CDP'는 영국 자선단체(no. 1122330)로 등록되어 있는 CDP Worldwide 를 지칭하며, 한국 내에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CDP의 로컬 파트로로써 CDP한국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무처를 맡고 있습니다.

# 발간사



올해로 우리나라에 CDP Climate Change를 도입한 지 7년째입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우리나라에서 CDP 는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 왔고 나름대로 저탄소 경제로 가는 길에 징검다리 하나를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대구 · 경북에서 개최되는 제7차 세계물포럼을 앞두고 CDP Water도 올해 도입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CDP 도입을 통한 발전과 기여 중 하나로, 한 국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전세계 금 융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는 점을 들고 싶 습니다.

올해 CDP 영국 본부에서 발간한 CDP 글로벌 보고서인 「The A list: The CDP Climate Performance Leadership Index 2014」는 기존처럼 시가총액이 높은 전세계 500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CDP의 정보공개대상에 편입된 전세계 모든 기업들 중에서 성과(Performance)점수밴드 A를 획득한 기업들만으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CDP에서 '성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취한 '긍정적(positive) 조치'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긍정적 조치는 기후변화 완화, 적응, 투명성에 기여한 바를 의미합니다. 밴드 A는 기후변화 대응과 목표 달성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전세계적으로 189개의 기업만이 이 밴드 A를 획득해 '2014 Climate Performance Leadership Index(CPLI, 기후성과 리더십 지수)'에 편입되었습니다. 그 중 한국기업 14개가당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34개)과 일본(24개)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CDP—Korea를 통한 참여기업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자부합니다.

금융투자기관은 이제 책임있는 정보공개와 더불어 '긍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기업에 더욱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을 테마로 투자상품을 개발하는 밀라노와 룩셈부르크 소재 기업인 ECPI가 CPLI와 글로벌 시장 지수인 Bloomberg World Index 그리고 글로벌 지속가능성 지수인 다우존스 지

속가능성 월드 지수(DJSWI: Dow Jones Sustainability World Index)를 CPLI가 도입된 2010년 10월부터 4년 동안 투자수익률 관점에서 비교한 결과, CPLI가 누적투자수익율 37.53%를 기록하여, 34.24%를 기록한 Bloomberg World Index와 31.38%인 DJSWI보다 높았습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후변화 관련 정량 데이터를 투자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투자수익에 기여한다는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가 시행됩니다. 시장 형성에 대한 불안감이 많지만, 기후변화와 관련한 새로운 투자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ETS 거래대상 기업 중 CDP 2014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요청받은 기업은 총 91개 기업입니다. 이 중 51개 기업이 CDP에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ETS 전체 대상기업의 약 10% 정도로 그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CDP는 배출권거래시장에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채널이 될 것입니다.

CDP한국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CDP 정보공개의 질을 더욱 높이는 한편 아직 정보공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많은 국내 기업들이 스스로 정보공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우리기업들의 실질적인 기후변화대응 역량과 경쟁력을 키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 21 0

**장 지 인** CDP한국위원회 위원장

# **CEO Foreword**



세계 경제는 위기에서 회복하고 있으며,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시장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경제 회복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온실 가스를 감축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또 다른 금융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전례 없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는 - 온실가스 감축, 수자원 보호, 삼림자원 보존 - 경제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스며들고 있는 반박할수 없는 한가지 사실은 환경 재앙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핵심이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피해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미국은 30년 만에 최악의 겨울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은 수조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호주에서는 관측 사상 가장 무더운 2년을 겪었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수백년 만에 가장 습한 겨울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한 보험사들은 1조 파운드 이상의 추가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CDP에 응답한 기업의 3/4이상이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제 모든기업들에게 기후변화 대응력 및 그 피해에 대한 회복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 전략이 되었습니다.

주류 투자자들이 기후변화 위험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하기 시작함에 따라, CDP를 통해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있는 767개 서명 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됩니다. 800조 달러 이상을 운용하고 있는 노르웨이 연기금 'Norges Bank'는 기업들에게 기후변화 위험 대응 및 물 경영전략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으며, 그들이 설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목재 및 팜 오일 기업의 투자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위한 새로운 연방 규제를 발표하였으며, EU는 6,000여개 기업

들에게 투자자들에게 보고되는 자사의 주류 보고서에 기업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 관련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한, 중국은 2만개 이상의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보 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비용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의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접근 방법에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측정, 투명성, 책임성은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CDP는 4,500여 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이 그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자사의 위험 및 잠재적 기회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엔 프로세스를 통한 새로운 국제 기후변화 협약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 도시, 민간 및 시민 사회는 담대한 행동과 2015년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회의에 추진력을 더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린 결정은 우리에게 풍요롭고 안정된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미래를.



# 기후변화를 필두로 한 물, 생물다양성 등 환경 관련 국제적인 정보공개의 확고한 표준으로 자리잡아가는 CDP는 국제적인 환경 규제와 시장 대응에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세계 125개국 지도자들이 기후 정상회의를 위해 총집결했지만 그다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던 지난 9월. 미국 뉴욕타임즈는 "기후변화 전망은 갈수록 비관적임에도 국제사회의 대책은 미진하다"며 인류가 갇혀 있는 6가지 신화를 분석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중한 가지만 언급하자면, 기후과학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좀 더지켜보자'는 견해, 즉 기후변화가 당장 엄청난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온실가스 감축에 드는 비용은 낭비라는 경제논리를 첫번째 신화로 들며 뉴욕타임즈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 바 있습니다. "적이 침략할 기능성이 없다고 해서 군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를 인용해 "위험이 크다고 예상될 때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산업에 따라, 또 기업 규모에 따라 기후변화를 체감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적으로 말한다고 해도 기후 변화는 기업들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습니다. 대응으로 인 한 수익이 당장 눈 앞에 잡히지 않고 조금 멀리 있기 때문에 보 이지 않을 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기업들에게 중장기적인 호흡을 요구합니다. 100미터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입니다. 42,195km를 뛰는 마라톤에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은 기후변화와 자신들의 비즈니스와의 상관관계, 즉 위험과 기회에 대한 명확히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시장에 대한 참여는 금융기관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A list: The CDP Climate Performance Leadership Index 2014」에 우리나라 기업 14개가 기후변화 관련 성과 측면에서 밴드 A를 획득해 '2014 Climate Performance Leadersihp Index'에 편입되었고,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기업 수가 많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업들과 CDP한국위원회가 서로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인 직간접 규제와 시장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가 시행됩니다. 시장 형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전망이 있습니다만, 이 제도 시행은 어떤 식으로든 기업들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발간된 CDP 2014 한국보고서에는 '배출권거래제와 CDP'를 다루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었을 때 어떤 기업이, 그리고 어떤 그룹사가 잘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늠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는 금융투자기관 뿐만 아니라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료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고자 여야 의원으로 조직된 '국회CSR정책연구포럼' 대표 의원으로서, 이번 「Korea 250 Climate Change Report 2014」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홍 일 표

올해 CDP 영국 본부에서 발간한 CDP 글로벌 보고서인 「The

국회의원 · 국회CSR정책연구포럼 대표의원

# **Investor Commentary**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이라는 본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 그룹의 친환경 상품 및 서비스를 확대하여 금융산업의 친환경리더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 경제적 손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기준 및 LEED인증 Gold 등급을 적용한 신한데이터센터를 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등 다방면 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2015년 온실가스 배 출권거래제 도입을 통해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기후정상회의 개막에 맞춰 발표된 유엔 성명서에 따 르면 세계적인 은행, 보험, 연기금 등이 유엔 녹색기후기금 조 성을 위해 내년 말까지 2,000억 달러 모금 계획에 동참하기로 하는 등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도 기후변화 및 환경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 최근 그룹 사회책임경영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친환 경 상품/서비스 개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영향 감축 등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회적 으로 기후변화 및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활동 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기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영향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업 시민으로서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에 부응하기 위해 환경과 관련된 내부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연계된 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건축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 해 2014년 4월에 '그린리모델링 이차보전대출' 상품을 출시하 였으며, 고객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하는 '그린愛너지정기 예금'과 '그린愛생활적금'을 통해 2013년 약 14조의 가입금액을 유치하였습니다.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환경영향 감축에 기여하 기 위해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건축물 최우수 등급

립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 및 환경리스크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색금융협의회, 녹색경제연구회, UNEP FI 등 다양한 협의체 및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의 결과로 2014년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 100대 기업(Global 100)'에서 국내기업 중 최고 순위인 30위로 선정되었으며, 최근에는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DJSI 월드지수에 2년 연속으로 편입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한 2014년 국내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CDP '탄소경영 글 로벌아너스클럽'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성과를 이루어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CDP에 참여함으로 써 그룹의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 가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이라는 본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 모하며 앞으로도 정부.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그룹의 친환경 상품 및 서비스를 확대하여 금융산업의 친환경 리더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 한 동 우 신한금융그룹 대표이사 회장

# 2014 Leaders

# **CDP Korea Awards**

### 2014 CDP Korea 명예의 전당

기업명	헌액연도
SK 하이닉스	2013
삼성전기	2014

### 2014 CDP Korea Awards 수상기업

시상명	부문	수상기업명	공개점수	성과밴드	연속수상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삼성 <del>물</del> 산	100	А	3년
		현대건설	100	А	 1년
		LG전자	100	А	 1년
		KT	99	А	2년
		삼성전기	99	А	5년
		신한금융그룹	98	А	 1년
탄소경영 섹터 위너스	금융	삼성화재	90	А	4년
		현대해상	82	С	2년
	금융(은행)	신한금융그룹	98	А	2년
		기업은행	86	С	4년
	 산업재	삼성 <del>물</del> 산	100	А	4년
		현대건설	100	А	3년
	 산업재( <del>운송</del> )	현대상선	89	В	 4년
	선택소비재	LG전자	100	А	6년
		코웨이	97	A-	 6년
		한국타이어	94	В	 1년
	에너지&유틸리티	한국전력공사	97	В	1년
		S-Oil	96	А	3년
	원자재	LG화학	99	А	2년
		포스코	96	В	 6년
		현대제철	96	A-	2년
	제약건강	LG생명과학	92	С	1년
	<del>통</del> 신	KT	99	А	5년
		LG유플러스	91	В	1년
	필수소비재	LG생활건강	80	С	 1년
		아모레퍼시픽	77	В	1년
	IT	삼성전기	99	А	 5년
		삼성SDI	97	А	1년
		 삼성전자	95	А	6년
탄소경영 특별상	공개점수 향상	LG유플러스	91	В	
		한화케미칼	91	В	
		제일기획	77	С	
	신규참여	LG생명과학	92	С	
		(주)LG	91	С	
	비상장기업	SK건설	91	В	
		한국동서발전	76	D	·

<sup>1.</sup>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을 포 함한 CDP Korea Awards 는 글로벌과 동일한 평가방 법론을 적용하여 산정되며, Korea 250 대상기업에 한 해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시 상제도입니다.

# CDP Korea Awards<sup>1,2</sup> 각 부문별 선정기준

# 명예의 전당

•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5년 연속 편입 기업

####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 평가 기준: 공개점수 50% + 성과점수 50%
- 대상 기업: 상위 5개 기업

### 탄소경영 섹터 위너스

- 평가 기준: 공개점수 100%
- 대상 기업: 섹터별 상위 3개
- 최소 점수 기준: 공개점수 75점

### 탄소경영 특별상

- 평가 기준: 공개점수 100%
- 최소 점수 기준: 공개점수 100%

### 공개점수 향상 부문

- 대상 기업: 당해 공개점수와 전년 공개점수의 폭이 큰 3개 기업
- 최소 점수 기준: 당해 공개점수 75점, 전년 공개점수 40점 신규참여 부문
- 대상 기업: 신규 참여 기업 중 상위 3개 기업 비상장 기업 부문
- 대상 기업: CDP 참여 비상장 기업

<sup>2 ,</sup> CDP Korea Awards의 수 상기업은 CDP 한국자문위 원회 (명단: 보고서 후면 참 조)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 됩니다. 탄소경영 섹터 위 너스와 탄소경영 특별상은 색터 별 특성을 반영하는 한편 기업의 탄소경영과 정 보의 공개를 장려하기 위해

### 2014 Korea Climate Performance Leadership Index (CPLI)

		. , ,	
기업명	섹터	성과밴드	공개점수
KT	통신	А	99
LG전자	선택소비재	А	100
SK하이닉스	IT	А	100
삼성물산	산업재	А	100
현대건설	산업재	А	100
삼성전기	IT	А	99
신한금융그룹	금융	А	98
S-Oil	에너지	А	96
한국지역난방공사	유틸리티	Α	95
LG화학	원자재	А	99
삼성화재	금융	А	90
삼성전자	IT	А	95
삼성SDI	IT	Α	97
두산중공업	산업재	Α	91



# 2014 Korea Climate Disclosure Leadership Index (CDLI)

섹터	공개점수	성과밴드
선택소비재	100	А
산업재	100	А
산업재	100	Α
IT	100	А
원자재	99	А
통신	99	А
IT	99	А
금융	98	А
유틸리티	97	В
선택소비재	97	A-
산업재	97	A-
IT	97	А
	선택소비재 산업재 IT 원자재 통신 IT 금융 유틸리티 선택소비재 산업재	선택소비재 100 산업재 100 산업재 100 IT 100 원자재 99 통신 99 IT 99 금융 98 유틸리티 97 선택소비재 97 산업재 97



### **CDLI & CPLI**

CDLL와 CPLL는 섹터구분 없이 공개점수와 성과점수에서 각각 우수한 성적(CDL): 상위 10%, CPLI: A밴드)을 보인 기업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CDLL와 CPLI의 아래의 모든 기준을 충족 시키는 기업에 한해 편입됩니다.

### CDLI 선정기준

- 온라인응답시스템(ORS)를 통해 기후변화정보를 제출, 공개(Public)
- 공개점수가 Korea 250 응답기업 가운데 상위 10%에 포함

### CPLI 선정기준

- 온라인응답시스템(ORS)를 통해 기후변화정보를 제출, 공개(Public)
- 성과점수 86점 이상 획득
- 12,1a번 문항(감축활동을 통한 (전년도 총 배출량 대비)온실가스 감축성과)에서 최고점 획 득 (4% 이상 감축)
- Scope 1 & Scope 2 배출량 공개

- Scope 1 & Scope 2 배출량 검증 문항에서 최고점 획득
- CDP응답내용 또는 기타 공개자료를 통해 해당 기업이 CPLI에 편입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시,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라도 CPLI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성과밴드 분류 기준

밴드	점수범위
A	86점 이상
	86점 이상
ВС	61점 ~ 85점
С	41점 ~ 60점
D	21점 ~ 40점
E	20점 이하
밴드없음	공개점수 50점 이하

\* 86점 이상의 성과점수를 획득하였으나, CPU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 하는 경우

# 기후변화 대응과 시장 성과



ECPI는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투자상품을 개발하는 밀라노와 룩셈부르크 소재의 기업이다. ECPI는 기후변화 경영 리더기업의 시장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CPLI(기후성과 리더십 인덱스, Climate Performance Leadership Index)가 도입된 2010년 10월부터, CPLI와 글로벌 시장 인덱스인 Bloomberg World Index 및 글로벌 지속가능성 인덱스인 Dow Jones Sustainability World Index(DJSWI)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투자전략의 개발에 기후변화 관련 정량 데이터를 반영하는 것이 투자 수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4년 동안 CPLI는 37.53% 상승하여, 34.24%를 기록한 Bloomberg World Index와 31,38%의 DJSWI보다 높았다.

각 인덱스의 구성을 지역에 따라 나누어 보면, CPLI는 Bloomberg World Index에 비해 신흥시장(emerging market) 기업의 비율이 낮은 반면 영국 기업의 편입 비율이 높았다. 또한 CPLI는 DJSWI에 비해 미국 기업의 구성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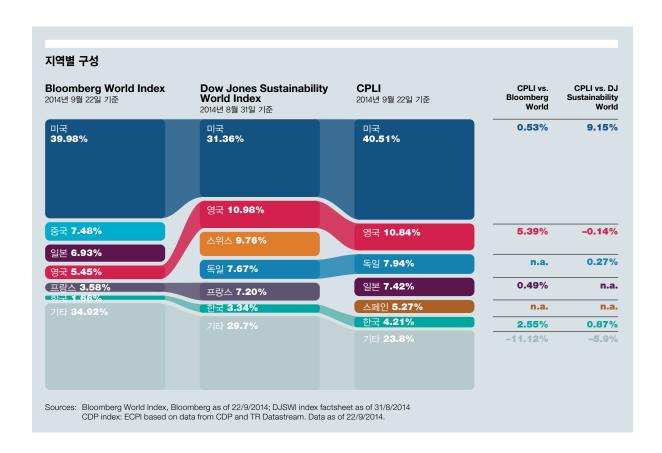
각 인덱스의 산업별 구성 비율 측면을 살펴보면, 다른 인덱스에 비해 CPLI는 금융 및 ICT 기업의 편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이들 섹터가 다른 산업에 비해 그들의 핵심 비즈니스 전략에 기후변화 이슈를 빠르게 통합하였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및 달성 수준도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CPLI에 편입된 에너지, 원자재 및 산업재 기업의 수는 다른 인덱스에 비해서 적었으며, 이는 이들 섹터에 속한 기업들이 다른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소 효율성 및 성과의 개선이 힘들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CPLI는 온실가스 배출 관련 물리적, 규제적 및 명성 관련 위험으로부터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독려함과 동시에 시장에서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우수한 툴로 판단된다.

앞으로 CDP 성과 점수에 따른 기업의 순위와 세계시장에 동일한 산업별 가중치를 적용한 인덱스를 개발한다면 흥미로울것이다.

참고: 본 섹션은 CDP 글로벌 보고서의 "The A List" 기 고된 ECPI의 분석내용을 번 역 및 수정하여 구성.





### 산업별 구성

	<b>DJ Sustainability</b> 2014년 8월 31일 기준	World Index	<b>CPLI</b> 2014년 9월 22일 기준		CPLI vs. Bloomberg	CPLI vs. DJ Sustainability
22.43%	금융	21.62%	IT	27.93%	16.45%	15.45%
12.22%	소비재	13.09%	금융	24.32%	1.89%	2.70%
11.79%	기술	12.48%	필수소비재	15.69%	6.50%	2.60%
11.48%	산업재	12.10%	선택소비재	10.05%	-2.17%	3.16%
9.19%	제약건강	11.92%	산업재	8.10%	-3.69%	-4.00%
9.03%	기초 원자재	8.71%	 통신	4.86%	0.36%	2.91%
8.75%	석유 및 가스	8.61%	제약건강	3.27%	-5.76%	-8.65%
6.91%	소비자 서비스	6.89%	유틸리티	3.09%	-0.53%	0.46%
4.50%	유틸리티	2.63%	원자재	1.68%	-5.23%	-6.93%
3.62%	통신	1.95%	에너지	1.00%	-7.74%	-7.71%
0.07%						
	12.22% 11.79% 11.48% 9.19% 9.03% 8.75% 6.91% 4.50% 3.62%	20.14년 8월 31일 기준 22.43% 금융 12.22% 소비재 11.79% 기술 11.48% 산업재 9.19% 제약건강 9.03% 기초 원자재 8.75% 석유 및 가스 6.91% 소비자 서비스 4.50% 유틸리티 통신	22.43%     금융     21.62%       12.22%     소비재     13.09%       11.79%     기술     12.48%       11.48%     산업재     12.10%       9.19%     제약건강     11.92%       9.03%     기초 원자재     8.71%       8.75%     석유 및 가스     8.61%       6.91%     소비자 서비스     6.89%       4.50%     유틸리티     2.63%       3.62%     통신     1.95%	2014년 8월 31일 기준 2014년 9월 22일 기준 12.22% 소비재 13.09% 금융 11.79% 기술 12.48% 필수소비재 13.10% 선택소비재 11.48% 산업재 12.10% 선택소비재 9.19% 제약건강 11.92% 산업재 9.03% 기초 원자재 8.71% 통신 8.75% 석유 및 가스 8.61% 제약건강 유틸리티 4.50% 유틸리티 2.63% 원자재 3.62% 통신 1.95% 에너지	2014년 8월 31일 기준     2014년 9월 22일 기준       22.43%     금융     21.62%     IT     27.93%       12.22%     소비재     13.09%     금융     24.32%       11.79%     기술     12.48%     필수소비재     15.69%       11.48%     산업재     12.10%     선택소비재     10.05%       9.19%     제약건강     11.92%     산업재     8.10%       9.03%     기초 원자재     8.71%     통신     4.86%       8.75%     석유 및 가스     8.61%     제약건강     3.27%       6.91%     소비자 서비스     6.89%     유틸리티     3.09%       4.50%     유틸리티     2.63%     원자재     1.68%       3.62%     통신     1.95%     에너지     1.00%	2014년 8월 31일 기준2014년 9월 22일 기준Bloomberg22.43%금융21.62%IT27.93%16.45%12.22%소비재13.09%금융24.32%1.89%11.79%기술12.48%필수소비재15.69%6.50%11.48%산업재12.10%선택소비재10.05%-2.17%9.19%제약건강11.92%산업재8.10%-3.69%9.03%기초 원자재8.71%통신4.86%0.36%8.75%석유 및 가스8.61%제약건강3.27%-5.76%6.91%소비자 서비스6.89%유틸리티3.09%-0.53%4.50%유틸리티2.63%원자재1.68%-5.23%3.62%통신1.95%에너지1.00%-7.74%

<sup>1,</sup> 인덱스는 CDP의 평가방법론을 통해 매년 평가된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된 CPL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인덱스의 구성은 매년 10월, 해당 연도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업데이트된다. CDP 2014의 평가결과에 따라 새롭게 업데이트 된 CPLI에는 14개의 한국기업이 편입되었다.

<sup>2.</sup> Bloomberg World Index는 Bloomberg World Index 시리즈에 포함된 모든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 시리즈에 포함되는 종목은 재평가(rebalance)시기에 블룸버그 섹터 구분에 따른 각 섹터의 시가총액 기중 상위 85%로 구성된다. 인 덱스 시리즈는 2월과 8월에 재평가된다.

<sup>3,</sup> The Dow Jones Sustainability World Index는 RobecoSAM의 기업지속가능평가를 통해 선정된 글로벌 지속가능성 리더 기업으로 구성된다. DJSWI는 S&P Global BMI의 2,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장기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요소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10%로 구성된다. 업데이트 시기: 매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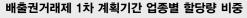
<sup>4.</sup> 해당 비교 분석은 인덱스의 지향성 및 산업 분류에 적용된 다른 기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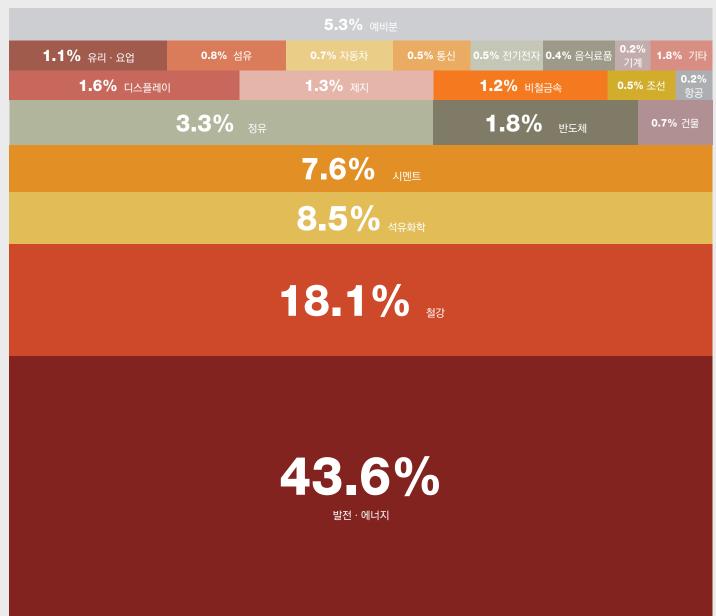
# 배출권거래제 & CDP

배출권거래제(ETS, 이하 ETS)1차 계획기간(2015-2017)동안 할당된 배출권의 총량은 1,686백만KAU(2015: 573백만, 2016: 562백만, 2017: 550백만)으로, 5.3%의 예비분을 제외한 94.7% 가 사전 할당되었다. 각 업종별 할당 비중을 살펴보면, 발전 · 에 너지 업종이 전체의 43.6%로 가장 높았으며, 철강(18.1%)과 석 유화학 업종(8.5%)이 뒤를 이었다. 대상기업 수 측면에서는 석 유화학업종의 대상기업이 85개로 가장 많았으며, 제지, 폐기물, 건물 부문의 대상기업이 40개 이상으로 많았다. 정유와 디스플 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가총액 상위 250개 상장 기 레이업종의 경우, 대상기업이 각각 5개와 4개로 상대적으로 적 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다 배출 기업의

었으나, 할당량의 비중은 전체의 3.3%와 1.6%로 발전, 철강업종 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ETS 대상 가운데 CDP 2014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기후변화 관 련 정보를 요청 받은 기업은 총 91개 기업이었다. 그 가운데 51 개 기업이 정보공개 요청에 응답하여, ETS 전체 대상기업의 약 10% 정도로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DP가 온실





의 배출권거래제 대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플레이, 자동차 및 통신이 B밴드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업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DP에 가장 많은 수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업종은 12개 기업 이 응답한 석유화학이었으며, 철강, 반도체, 통신, 전기전자, 조 선 업종의 경우, 2013년 목표관리제 기준 업종 전체 배출량 가 운데 70% 이상이 CDP를 통해 보고되었다.

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수준을 의미하는 성과밴드의 업

비상장 비율이 높은 발전 및 정유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종별 응답기업 평균은 발전 · 에너지, 철강, 정유, 반도체, 디스 종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났으며, 기업의 기후변화 정보 공개 수준을 의미하는 공개점수의 경우, 발전·에너지, 철강,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섬유, 자동차, 항공 업종의 응답기업 평균 이 80점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 ETS & CDP 2014 대상기업 현황

업종	ETS 대상 기업 수	업종별 할당량 ((CO2e)*	요 80 1일 80 1 80 1 80 1 80 1 80 1 80 1 80 1 80 1	CDP 대상 기업 수	CDP 응답 기업 수	CDP 응답기업 배출량 비중**	CDP 응답기업 평균 공개점수	CDP 응답기업 평균 성과밴드	GICS 세터
예비분	ш <del>с</del>	88,821,664	5.3%	- 07	- 0 /	O = _	- O AV	O A0	_
발전 · 에너지	39	735,852,571	43.6%	5	4	19%	87	В	 유틸리티
철강	39	305,764,349	18,1%	7	2	89%	96	В	 원자재
석유화학	85	143,697,914	8.5%	19	12	39%	76	С	산업재, 선택소비재, 원자재, 제약건강
시멘트	25	127,996,032	7.6%	1	0	_	_	_	원자재
 정유	5	56,333,587	3.3%	1	1	26%	96	Α	에너지
반도체	19	30,749,425	1.8%	2	2	78%	97	Α	П
디스플레이	4	26,893,289	1.6%	1	1	54%	88	В	П
제지	44	22,442,636	1.3%	1	1		_	_	원자재
비철금속	24	20,259,799	1.2%	3	1	4%	73	С	원자재
유리 · 요업	24	18,422,589	1.1%	2	1	22%	78	С	산업재, 원자재
섬유	15	13,827,807	0.8%	3	1	29%	86	С	선택소비재, 원자재
자동차	24	12,478,791	0.7%	7	1	37%	81	В	산업재, 선택소비재
건물	40	11,815,350	0.7%	6	3	25%	62	D	금융, 산업재, 선택소비재, 필수소비재
통신	6	9,086,009	0.5%	4	4	98%	79	В	통신
전기전자	20	8,463,174	0.5%	9	7	74%	65	С	산업재, 선택소비재, IT
조선	8	7,891,565	0.5%	4	3	74%	69	С	산업재
음식료품	23	7,454,939	0.4%	9	2	13%	34	Е	필수소비재
기계	20	4,165,368	0.2%	5	4	48%	68	С	산업재
항공	5	3,793,471	0.2%	2	1	-	80	С	산업재
폐기물	45	26,233,824	1.6%	0	0	-	-	-	-
수도	3	2,253,973	0.1%	0	0	_	-	_	-
목재	7	1,129,562	0.1%	0	0	-	_	_	-
광업	2	721,724	0.0%	0	0	_	_	_	_
합계	526	1,686,549,412	100%	91	51	35%	76	С	

<sup>\*</sup> 출처: 국가배출권할당계획, 환경부, 2014,9,11 \*\* 2013년 목표관리제 보고 배출량 기준

# 그룹사별 기후변화 대응 현황 분석

ETS & CDP 2014

### ETS 규제 리스크, 한전, 포스코, SK, 현대차그룹 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대상인 기업들의 배출량을 목표관리제를 기준으로 주요 그룹사별로 배출량 비중을 분석한 결과,한국전력그룹이 38.9%로 가장 높았다. 포스코그룹은 15.3%로그 뒤를 이었다. 두 그룹에 속한 기업들의 배출량 비중이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들 전체 배출량의 54.2%를 차지했다.

이는 기후변화와 배출권거래제라는 규제 위험에 대한 노출도와 책임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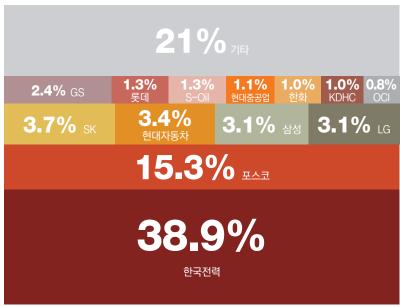
SK그룹은 3.7%, 현대자동차그룹이 3.4%로 그 뒤를 이었다. 삼성그룹과 LG그룹은 모두 3.1%로 동일한 비중이다. GS그룹 2.4%, 롯데그룹과 S-Oil 각각 1.3% 순이었다.

### 리스크와 책임성에 상응하는 경영정보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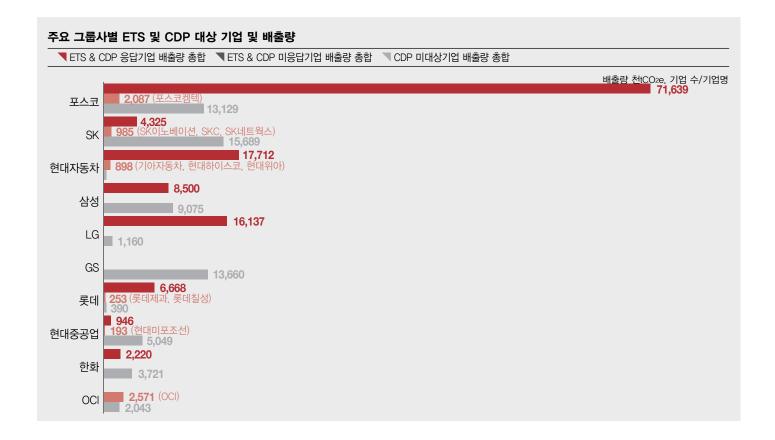
그러나 책임성이 크고 위험성이 높은 만큼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투명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다. 탄소경영 관련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는 CDP 이외에는 얻을 수없는 실정이다.

총16개 기업에 비중이 3.7%인 SK그룹의 배출총량 2,099만 9000톤 중 1,667만4000톤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SK이노베이션, SKC, SK네트웍스는 CDP 정보공개대상임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의 배출량은 98만5,000톤이며, CDP대상이 아닌 9개 기업의 배출량은 1,568만9000톤에 이른다. 총 5개 기업이 ETS 대상인 GS그룹의 경우 총배출량은 1,366만톤이다. 2.4% 비중을 차지하는 그룹의 리스크와 책임성이 작은 편이 아니지만 이 1,366만톤에 대한 관리와 관련한 경영정보 또한 알 수 없다. 삼성그룹은 총 10개가 ETS의 대

### 주요 그룹사별 ETS 대상기업 배출량 비중 (2013 목표관리제 기준)



상기업으로, 총배출량은 1,757만5000톤이다. 이 중 7개 기업의 850만톤은 CDP를 통해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관리 수준을 파악할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 총 배출량이 8,685만5000톤으로 전체 15.3% 비중을 차지해 리스크와 책임성이 한국전력그룹 다음으로 큰 포스코그룹은 포스코 1개 기업이 82%를 차지하며, CDP를 통해 경영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총배출량 대부분의 경영정보를 CDP에 보고하고 있지만 기아차, 현대하이스코, 현대위아는 불투명하다.



# 그룹사별 기후변화 대응 현황 분석

CDP 2014 응답현황

올해 그룹사별 CDP 응답과 성과 등 대응 현황 분석은 CDP 정보공개 대상기업에 5개 이상 계열사가 포함된 그룹을 대상으로 하였다. 삼성, 현대차, LG, SK, 두산, 롯데, 포스코, CJ가 그비교 대상이다.

### LG그룹 응답률 100%

올해 그룹사별 비교 결과, LG그룹의 약진이 눈에 띈다. 10개 기업이 포함되어 10개 모두 응답해 그룹사별 응답률 1위를 기록했다. 그동안 응답하지 않았던 LG의 모든 계열사들(LG, LG상사, LG생명과학)이 모두 정보를 공개했다. 경영진이 CDP에 관심을 가지면서 ㈜LG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CDP에 16개 계열사가 편입되어 있는 삼성그룹은 2012년 100% 응답이었으나 2013년에는 15개 응답(94%), 올해는 14개 응답 (88%)으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점점 약화되는 추세에 있 다. LG그룹에 2위를 내주었지만 그럼에도 절대 다수의 기업이 CDP에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두산그룹은 5개 중 ㈜두산건설을 제외한 4개가 응답해 3위를 기록했다.

#### SK그룹, SK이노베이션 7년 동안 무응답

SK그룹은 10개 중 5개가 응답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SK가 응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SK이노베이션, SKC, SK네 트웍스는 배출권거래제(ETS) 대상기업임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기후변화에 상당한 책임성이 있는 산업임에도 7년 동안 정보 공개를 한 적이 없다. CDP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꾸준히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SK하이닉

#### 주요 그룹사\*별 응답률

응답률%,	응답기업 수/	대상기업 수

순위	그룹명	응답률	
1	LG	100 (10/10)	
2	삼성	88 (14/16)	
3	두산	80 (4/5)	
4	SK	50 (5/10)	
5	현대자동차	44 (4/9)	
6	롯데	33 (2/6)	
7	포스코	20 (1/5)	
8	CJ	14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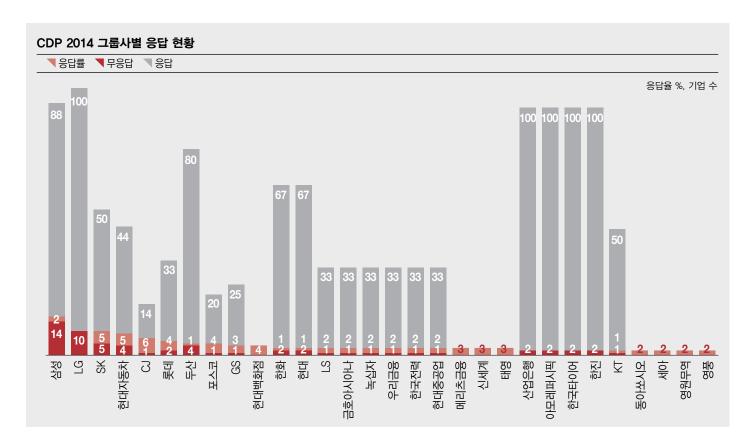
\*CDP 대상기업 5개 이상 그룹

### 스와 대비된다.

9개 중 4개만이 응답한 현대자동차그룹은 ETS에 포함되어 있는 기아자동차, 현대하이스코, 현대위아가 응답하지 않았다. 특히 기아자동차는 6년 이상 무응답이다.

6개 중 롯데케미칼과 롯데쇼핑만이 응답한 롯데그룹 또한 응답률이 저조하다. 장기간 응답하지 않은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은 ETS 대상기업이기도 하다.

포스코 그룹은 5개 중 포스코만이 유일하게 응답했고, CJ그룹 또한 CJ제일제당만이 정보를 공개했다.



# 그룹사별 기후변화 대응 현황 분석

CDP 2014 공개점수 & 성과밴드

CDP의 기본은 정보공개이다. 금융투자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삼성그룹의 응답기업 전체 공개점수 평균은 81점이며, LG그룹 이해관계자들에게 기후변화와 관련한 자사의 정보를 공개함으 로써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는 물론 위험과 기회를 발견하고 기 후변화에 주목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투자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CDP 응답거부 기업보다 미흡하나마 정보공개 기업이 더 투명성과 책임성이 있는 이유다. 공개는 기후변화 대 응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성과는 공개를 넘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의미있는 조치를 취하는 걸 의미한다. CDP의 대응하는 기업은 공개에서 성과로 나아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그룹사별 공개점수 삼성그룹과 LG그룹 경쟁

CDP 정보공개 대상에 5개 이상의 계열사가 포함된 그룹의 정 보공개 점수 분포와 성과밴드 분포를 분석한 결과, 삼성그룹 계 열사들과 LG그룹 계열사들이 공개와 성과 두 부문에서 서로 경 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공개점수 분포를 보면, 삼성그룹은 공개점수 91점 이상 을 획득한 기업이 응답기업 14개 중 6개로 가장 많았다. 삼성 물산, 삼성전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SDI, 삼성전자, 삼성중공 업이 91점 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공개점수 70점대 이하도 5 개로 가장 많았다.

LG그룹은 91점 이상이 5개며, 70점대 이하는 1개였다. LG전자, LG화학, LG생명과학, ㈜LG, LG유플러스가 91점대 이상인 계열 사다. 71점~80점 대에 3개의 기업이 분포되어 있다.

은 5점이 높은 86점이었다. 두 그룹 모두 올해 CDP 응답기업의 공개점수 전체 평균인 73점을 8점~13점을 상회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총 4개 계열사가 응답해 91점 이상에 3개(현 대건설,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81점~90점대에 1개 계열사가 분포되어 있어 평균 92점으로 가장 높은 공개점수를 기록했다. SK그룹은 91점 이상이 1개(SK하이닉스), 81~90점대에 3개, 70 점대 이하에 1개가 분포되어 있어 전반적으로는 중위권 기업 이 많았다.

롯데그룹의 경우도 응답한 두 개 기업(롯데쇼핑, 롯데케미칼)만 봤을 때 평균 86점으로 중상위권이었다.

### 삼성과 LG, 계열사 성과 평균은 B밴드

그룹사별 성과밴드 분포를 보면, 삼성그룹이 상위권 밴드의 수 가 LG그룹보다 단연 앞섰다. 삼성그룹은 A와 A- 밴드에 총 6 개 계열사가 분포되어 있는데 비해 LG그룹은 2개만이 A밴드 에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LG그룹의 7개 계열사들이 B와 C밴 드에 속해 있는데 비해 삼성그룹의 일부 계열사들이 D밴드에 속해 있어. 이들 응답 계열사들의 성과밴드를 평균적으로 분석 해 보면 모두 B밴드다.

현대차그룹은 A(현대건설)와 A-(현대제철)에 각각 1개, B에 2 개가 분포되어 있어 성과가 높은 편이다. SK그룹은 SK하이닉 스만이 A밴드이며 나머지는 B와 C에 속해 있다. .

### LG그룹

# 계열사에 'No1. Greenovation Company' 제시

올해 CDP 2014에서는 주목할 점 중 하나는 LG그룹의 전사적 이며 적극적인 참여라 할 수 있다. 정보공개 대상 10개 기업에 10개 모두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 참여한 기업의 정보공개 수준 또한 양호하기 때문이다. LG그룹사 차원의 그린경영, 탄 소경영 관련 리더십의 결과다. LG그룹은 기존의 사업장 중심의 환경보호 중심의 환경경영이 아닌 '그린경영'을 지향한다. LG 그룹의 그린경영은 그린 사업장 조성뿐만 아니라 그린 신제품. 그린 신사업 강화를 통해 기후 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에 기여하는 걸 의미한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그린경영은 LG의 비전인 '일등LG' 달성 의 필요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가장 혁 신적인 그린 컴퍼니(Green Company)인 'No1. Greenovation Company'로 도약이 LG의 목표다.

LG그룹은 '그린경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룹과 자회사의 그린경영 목표를 연계하고 있다. 또 매년 '그린경영 성과보고회' 와 '전략보고회'를 통해 LG 전체의 그린경영 성과와 전략을 공 유한다, 자회사의 적극적인 그린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 주요 그룹\* CDP 2014 공개점수 분포 비교

그룹명	91점 이상	81–90	71–80	70이하	무응답
삼성	6	2	1	5	2
LG	5	1	3	1	0
SK	1	3	0	1	5
현대자동차	3	1	0	0	5
CJ	0	0	0	1	6
롯데	0	2	0	0	4
두산	1	0	1	2	1
포스코	1	0	0	0	4

\*CDP 대상기업 5개 이상 그룹

주요 그룹\* CDP 2014 성과밴드 분포 비교

그룹명	Α	A-	В	С	D	Ε	0	무응답
삼성	5	1	2	1	4	1	0	2
LG	2	0	3	4	1	0	0	0
SK	1	0	2	1	0	0	1	5
현대자동차	1	1	2	0	0	0	0	5
CJ	0	0	0	0	1	0	0	6
롯데	0	0	1	1	0	0	0	4
두산	1	0	0	1	0	0	2	1
포스코	0	0	1	0	0	0	0	4

\*CDP 대상기업 5개 이상 그룹

# **Guest Interview**

### ▼ 인터뷰 조 갑 호 LG화학 대외협력총괄 전무

## "Global 수준의 에너지 · 기후변화 경쟁력 제고에 집중"

LG화학은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련 국내외 규제에 대한 선도적 대응과 그린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 기 위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LG화학은 2004년부터 기후변화협약 대응 TFT를 구성하고, 사업장의 친환경 녹색공정 구축, 공정상 에너지 효율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시에 고부가가치 제품과 에너지 저소비 제품 생산으로의 구조 전환 등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2008년에는 에너지 경쟁력이 곧 제조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CEO를 위원장, 대외협력총괄 조갑호 전무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전사 에너지위원회'라는 강력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조직체계를 구성하여 에너지 · 기후변화 기술과 성과를 공유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 에너지 절감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 구성 전인 2007년까지 연평균 1%에 그치던 에너지 절감율이 위원회가 구성된 2008년부터 연평균 6% 수준으로 6배 이상 큰 폭으로 향상 된 바 있다.

현재 LG화학은 2020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23% 감축과 그린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장기 에너지 원단위 절감 목표도 수립하고 에너

지·온실가스 관리 IT 시스템(GEMS)운 영을 통해 매월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 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다.

LG화학 대외협력총괄 조갑호 전무는 "2013년 말 국내외 해외 사업장을 모두 포함해 BAU 대비 10%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는 체계화된 에너지 절감, 선도적인 기후변화 관련 규제 대응 체계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LG화학의 체계화된 에너지관리 체계는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어 대내 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에너지경영 시스템(EnMS)을 도입해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혁신적인 공정개선과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그린 사업에 대한 과감 한 투자와 전사 차원의 에너지경영을 추 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100억원의 에너지를 추가로 절 감해 연간 800억원이 넘는 에너지 절감 성과를 거두었으며, 협력사와도 에너지 절감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목표관리 제, 배출권거래제 등 각종 규제대응을 지



원하여 기후변화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조갑호 전무는 "에너지 관리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중 하나"라며 "향후에는 미 래형 에너지 절감 신기술을 적극 발굴해 글로벌 수준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집중할 방침이 다"고 밝혔다.

### ▼ 인터뷰 이 충 학 LG전자 경영지원부문장 전무

## "에너지 고효율 제품과 사업장 에너지절감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 확대"

에너지 고효율 제품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은 전자업계의 중요한 이슈이다. 실제로 LG전자가 201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위해 중대성 평가를 한 결과에서도 이 두 이슈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나타났고, 동종업계를 벤치마킹한 결과도 그렇다. LG전자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업의 다양한 위험과 기회를 인식하고 2009년부터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생산단계, 사용단계, 제품 전과정 그리고 임직원 참여ㆍ지역사회 확산이라는 4대 대응 전략을 세워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생산단계에서는 2008년 배출량 대비 2020년까지 15만 톤 감축, 사용단계에서는 2007년 기준 2020년 BAU 대비 6,000만 톤 감축으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사용단계에서 누적 약4억 톤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향해 뛰고 있다. 당초 LG전자는 제품 사용단계 온실가스 발생량을 연간 3,000만 톤 감축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는데, 2013년 3,800만 톤 저감을 달성해 목표 연수를 7년 앞당겼다. TV, 세탁기, 에어컨 등의 제품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신기술을 적용한 때문이다.

LG전자는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목 표를 기존 대비 약 2배 상향한 6,000만 톤으로 재수립했다.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LG전자 경영지원 부문장 이충학 전무는 "제품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 및 주요 제품에 친환경 소재 적 용 비중을 확대, 제품별 탄소배출량 및 저 탄소 제품 인증 취득 확대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를 더욱 제고 시키겠다"고 밝혔다. LG전자는 또한 에너지 효율 진단 결과 도 출된 설비 운영효율 향상, 고효율 설비투 자, 에너지지킴이 활동 전개, 빌딩통합제 어시스템(BdMS)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는 한편 사무용 건물 온실가스 는 물론 협력회사, 물류 및 출장, 물 사용 량 등 사업 전 부문 온실가스 관리를 확대 해 나가고 있다. LG전자가 CDP의 정보 공개 뿐만 아니라 성과에서도 꾸준히 높 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건 바로 이런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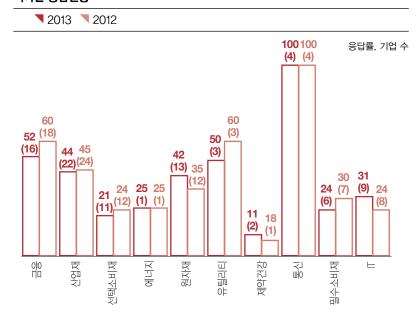


력의 결과다.

이충학 전무는 향후 "제품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과 사업 전과정 온실가스·에 너지 관리 및 감축활동을 확대하고, 글로 벌 환경안전 통합관리 시스템을 더욱 내 실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섹터별 현황분석

### 섹터별 응답현황



CDP 2014의 전체 응답기업 수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한 87개이다.

### 섹터별 응답률

대부분의 섹터가 지난해와 비슷한 응답률을 보여준 가운데, 통 신섹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대상기업이 CDP를 통해 자사의 기후변화 정보를 공개하여 100%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원자재, 제약건강 및 IT섹터의 응답률은 지난해에 비해 상승하 였고, 나머지 섹터의 응답률은 소폭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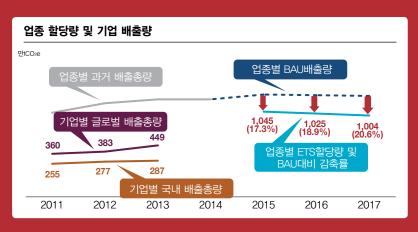
각 섹터 별 응답기업의 수는 산업재가 가장 많았고, 금융, 원자 재 순이었으며, 에너지섹터의 경우, 올해에도 S-Oil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기업은 CDP에 응하지 않았다.

#### 섹터별 공개점수 및 성과밴드

CDP 2014 전체 응답기업의 공개점수 평균은 73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6점이 상승하였으며, 평균 성과밴드는 C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 분석 설명

- 아래 분석은 ETS 포함 기업만을 대상으로 진행





### ▼ 업종 할당량 및 기업 배출량

- 업종별 과거 배출총량: 배출권 할당의 기준이 되는 과거 3개년도(2011-2013) 업종별 배출총량의 흐름. 업종별 ETS 대상기업의 목표관리제 보고 배출량의 총합. 배출량 미공개 기업의 존재 등으로 일관성 있는 수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업종별 BAU배출량: 추가적인 감축활동이 없을 경우의 업종별 ETS 대상기업의 예상배출총량. 업종별 ETS할당량 및 감축률을 통해 역산. 감축률이 에너지/비에너지로 구분되어 있어, 유의미한 수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업종별 ETS 할당량 및 BAU 대비 감축률: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공개된 각 업종별 할당량 및 BAU 대비 감축률 (감축률이 에너지부문과 비에너지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 업종의 경우, 각각 "에너지/비에너지" 순으로 표기)
- 기업별 글로벌 배출총량: CDP를 통해 공개한 해당기업의 국내외 온실가스 배출총량. 국내 배출총량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표기.
- 기업별 국내 배출총량: 목표관리제를 통해 공개한 해당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

### ▼ 기업 원단위 배출량

- 매출액 대비 원단위 배출량
-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
- '온실가스 배출량 (CDP에 보고된 글로벌 배출량) / 매출 액 (IFRS연결기준/별도기준)'으로 산정
- 원단위 수치가 낮을 수록, 단위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적다는 것을 의미. 즉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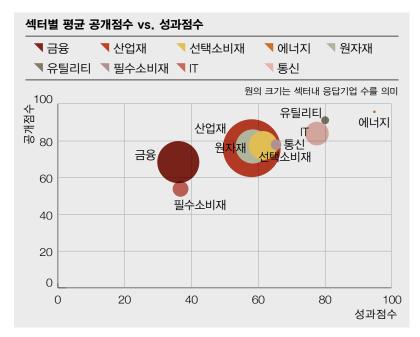
섹터 별로는 에너지와 유틸리티의 공개 및 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응답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에너지 1개, 유틸리티 3개) 응답기업이 5개 이상인 섹터가운데서는 IT섹터의 공개 및 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 섹터의 공개 및 성과를 지난해와 비교하면, 선택소비재와 필수소비재 섹터의 성과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나머지 섹터도 대부분 소폭 상승하였다.

###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기반 분석

올해 CDP 보고서에서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맞아, CDP를 통해 보고된 각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감축활동, 기후변화 경영 시스템의 구축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각 분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설명을 참조할 수 있다.

 $\checkmark$ 



### 경영시스템

기 비년스 인센티브 기 후변화전략 ✓

ETS전략

### ▼ 경영시스템

기후변화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경영 시스템 구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

- 거버넌스: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기후변화 관련 이슈의 의사 결정권자의 존재 여부
- 인센티브: 임직원의 기후변화 대응 동기 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의 운영 여부
- **기후변화전략:** 기후변화 전략의 유무
- ETS전략: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전략의 유무

### 감축활동

감축비율 8.3%

연간 총 감축 예상량 **0.7** 만tCO2e

주요 감축활동 당 평균투자액 **3,750 백만원** 

# ▼ 감축활동

CDP 2014를 통해 보고된 감축활동. 감축활동의 많고 적음은 감축잠재량의 감소, 온실가스 감축 노하우 축적을 통한 대응 효율성 향상, 조기감축실적 인정을 통한 배출권의 추가할당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 가능.

- 감축비율: 2013년에 이루어진 감축활동을 통해 저감한 온실가스의 총량을 해당기업의 2012년 배출량으로 나눈 값. 기업의 배출총량 증감과는 다르며, 해당기업의 감축활동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참고: 생산량 증감, 감축활동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기업의 배출량 증감을 추가적인 감축활동이 없을 경우(BAU) 예상 배출량과 나눈 BAU대비 감축률과는 다른 개념.)
- 전체 감축량: 계획이 확정된/진행 중인 감축활동을 통한 연간 감축총량
- 주요 감축 활동당 평균 투자액: 보고된 주요 감축활동(주의: 전체 감축활동이 아님)의 평균 투자액

### Scope3(외부배출) 관리

보고 카테고리 수 2개

가치사슬 인게이지먼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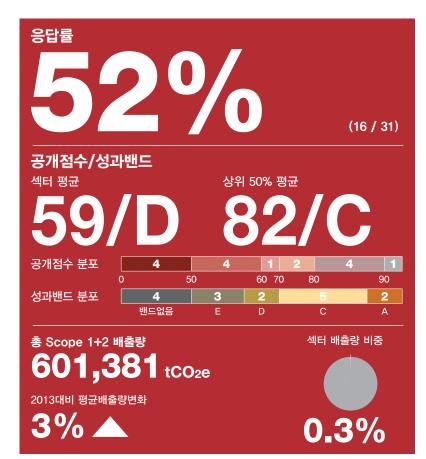
인게이지먼트 협력사수 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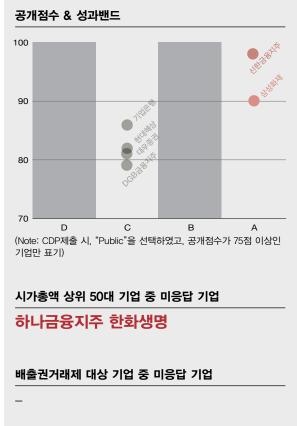
### ▼ Scope3(외부배출) 관리

Scope 3(기타 간접배출)는 기업이 소유하지 않았으나 기업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배출원으로부터의 배출을 의미. Scope 3 관리가 우수한 기업은 ETS하의 외부감축사업을 통한 배출양의 상쇄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고도 해석 가능.

- 보고 카테고리 수: GHG protocol Scope 3 standard에서 구분하고 있는 15개 Scope 3 카테고리 가운데 해당 기업이 산정 및 보고한 카테고리의 수.
- 가치 사슬 인게이지먼트: 해당 기업의 가치사슬(예: 협력사, 소비자 등)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인게이지먼트 활동 여부
- 인게이지먼트 협력사 수: 해당 기업이 인게이지먼트를 진행하고 있는 협력사의 수

금융





#### ETS 분류: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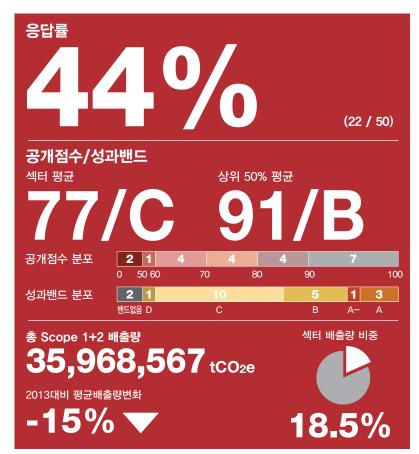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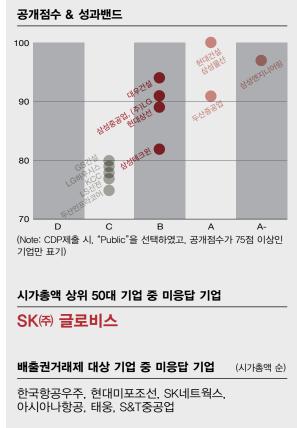


# ीर्धित के सम्बर्धित ( ) स्थारिक के सम्बर्धित ( ) ) 신한금융그룹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녹색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기관의 친환경 상품 개발에 대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소비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새로워진 욕구를 충족하고 환경영향을 저감하고자 소비자의 친환경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린에너지 산업, 환경경영 관련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금리를 인하하고 수수료를 우대해 주는 여신상품을 출시하여 지원하는 한편,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동시에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적금, 카드, 보험, 기타 금융상품 등 다양한 녹색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러한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는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자 기울여온 신한금융그룹의 지속적 노력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2월부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본 법령은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 성능과 사용량 등을 증명하는 '에너지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공공건물 및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신축 및 리모델링 시 녹색건축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국가 온실가스 발생량의 25,6%를 차지하는 건축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이와 관련된 건축물 시장의 판도 변화와 녹색건축 및 노후화된 건물의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할 것을 선제적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 8월에 국토교통부와 MOU를 체결하고 노후건축물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상품기획에 착수하여 2014년 4월에 '그린리모델링 이차보전대출'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본 상품을 통해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바 있으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와 관련된 금융시장에서 선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

NET SERVICE OF THE PARTY OF THE

# 사업재





#### ETS 분류: 기계





### ETS 분류: 석유화학



# ETS 분류: 유리, 요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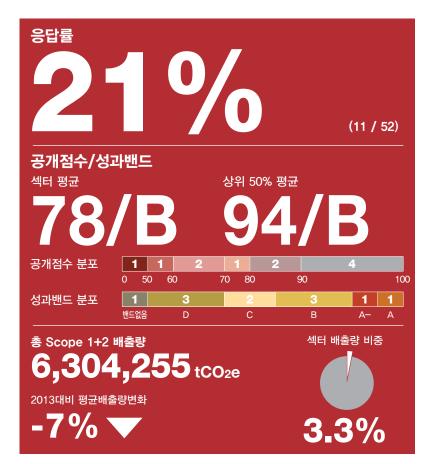
### ETS 분류: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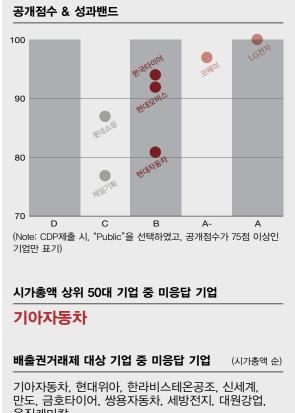






# 선택소비재





#### ETS 분류: 건물



### ETS 분류: 전기전자





### ETS 분류: 석유화학



### ETS 분류: 자동차





#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의 대표 친환경 타이어인 '앙프랑 에코(enfren eco)'는 일반 타이어에 비해 회전저항(주행 시 타이어 자체 또는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서의 발생하는 회전에너지 손실을 의미함.)이 낮아 차량운행 시 연비 절감 효과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함으로써 '친환경 타이어'라는 또 하나의 세그먼트를 새롭게 창출해 운전자들의 운전습관 및 취향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총 21개 규격으로 출시되어 국내에서 판매 중인 거의 모든 승용차에 장착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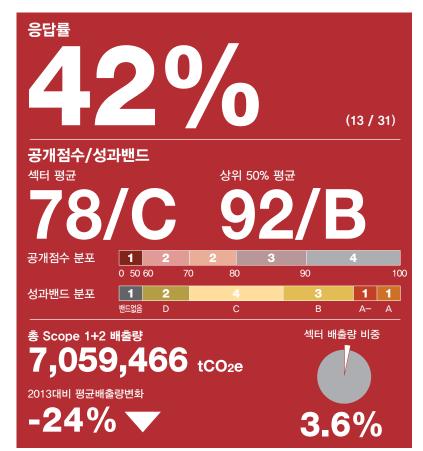
'앙프랑 에코'는 회전저항을 최소화하는 구조 설계 기술과 함께 고분산 실리카 배합기술 등 최첨단 소재응용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의 타이어에 요구되던 우수한 주행성능과 탁월한 정숙성에 더해 최고 수준의 연비 성능을 구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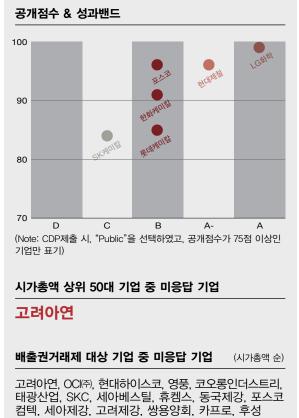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과 5등급 타이어 간의 연비 차이는 리터당 약 1,6km로, 준중형 차량의 평균 연료 탱크가 50리터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1회 주유 시 80km 더 주행이 가능하며, 연간 15,000km를 주행한다고 가정할 때 한 대당 약 20.5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고 주유비도 약 16만원을 절약하게 됩니다.

한국타이어



# 워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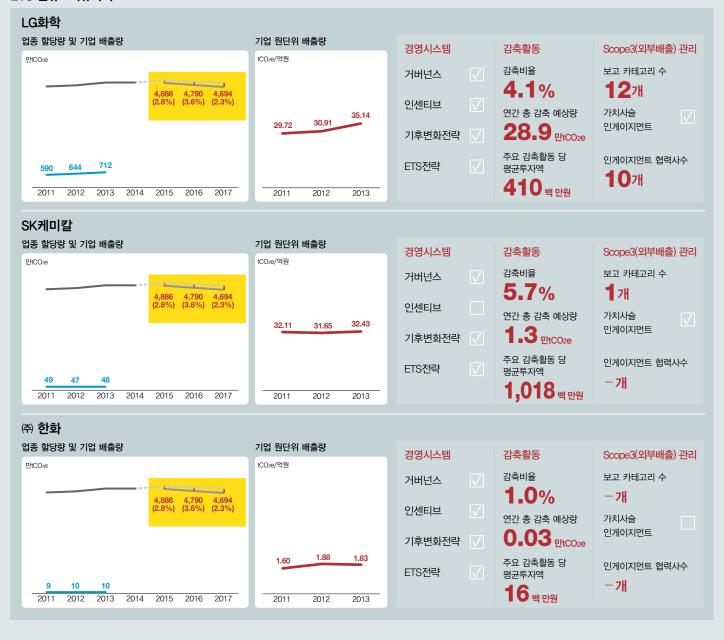




#### ETS 분류: 석유화학



### ETS 분류: 석유화학





### ETS 분류: 철강



## CDP 2014 응답 국내외 주요 철강기업 현황 분석

2013년 조강생산량 기준 세계 20위권 기업 가운데 8개 기업이 CDP 2014를 통해 자사의 기후변화 정보를 공개하였다. 비공개를 선택한 신일본제철을 제외한 응답기업 7개 가운데 5개 기업이 생산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

가 배출권거래제에 편입 또는 편입 예정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반적으로 조강 생산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타타제철과 현대제철은 조강단위당 원단위가 낮아 조강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철강 생산 공정 상의 차이로 분석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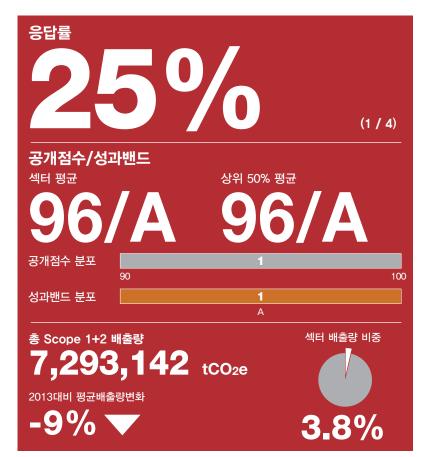
기업명	조강생산량 (백만톤)*	조강생산량 순위*	온실가스 배출량(천tCO2e)	ETS대상	ETS 검증배출량/ 할당량(천tCO2e)	공개점수	성과밴드
아르셀로미탈	96.1	1	180,024	EU-ETS	51,418 / 60,593	91	В
신일본제철	50.1	2	비공개	-	-	-	-
포스코	38.4	6	74,781	한국 ETS	2015년부터 시행	96	В
JFE	31,2	10	54,900	-	-	38	-
타타제철	25.3	11	21,694	-	-	97	비공개
US스틸	20.4	13	46,458	EU-ETS	8,397 / 6,416	85	В
현대제철	17,2	18	16,211	한국 ETS	2015년부터 시행	96	A-
티센크루프	15.9	21	28,500	EU-ETS	16,718 / 18,030	91	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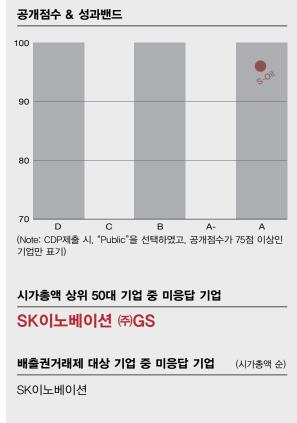
<sup>\*</sup>자료출처: 세계철강협회, 'Top steel-producing companies 2013'

LG화학



# 에너지





### ETS 분류: 정유



### 탄소 예산 (CO<sub>2</sub> Budg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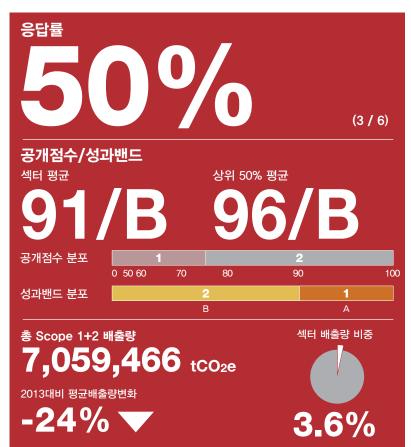
올해 있었던 COP 19에서는 탄소예산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화두가 되었다. Carbon Tracker와 IEA의 연구 모델에 의하면,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을 2℃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인류가 2050년까지 사용 가능한 탄소예산, 즉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의 총량은 5,650-8,860억 tCO₂e으로 측정된다. 만약 기후변화 대응을위한 보다 구속력 있는 국제적 합의도 도출되고, 전세계의 모든에너지 기업이 세계 탄소 예산에 비례하는 탄소 배출권을 할당받게 된다면, 그 규모는 약 125-275 GtCO₂e 정도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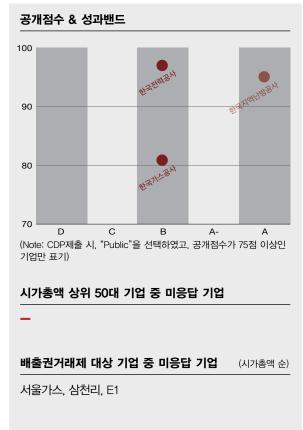
이는 현재 전세계 에너지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양(매장량 포함)의 20-40%에 해당하는 양이다. 즉, 현재 에너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석탄,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장부상 자산가치의 60%-80%가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 기업 투자자들에게 주요한 투자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에 너지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 유틸리티





#### ETS 분류: 발전 에너지



### ETS 분류: 발전 ·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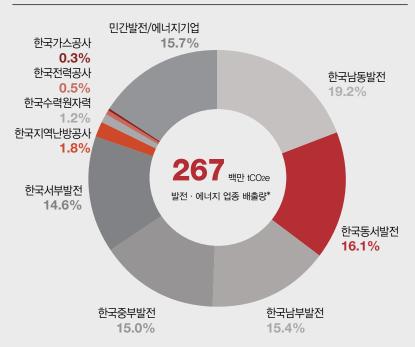


### 발전 에너지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비중 및 정보공개 책임성

### 발전 · 에너지 업종의 ETS 할당량 비중

43.6%

### 발전에너지 업종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비율



발전·에너지 업종은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가장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섹터로 2013년 목표관리제 기준으로 2억 6천 7백만tCO2e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으며, 2015년부터 시행될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 사전할당량의 43.6%가 배분되었다. 하지만, 발전·에너지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기후변화관련 정보 및 경영 수준에 대한 정보공개는 다른 섹터에 비해상대적으로 미흡했다. CDP 2014 응답기업은 4개(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불과하였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한전발전자회사 가운데서는 한국동서발전만이 유일하게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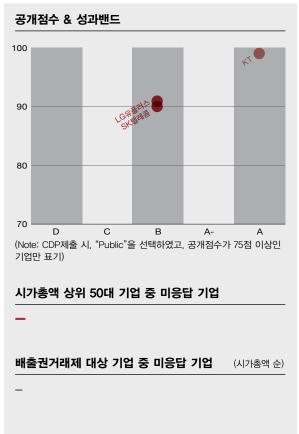
전력의 생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및 이에 대한 관리는 발전 사 자체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 국민 개개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발 전기업들은 다른 기업에 비해 기후변화에 대한 더욱 놓은 수준 의 책임성이 요구된다.

CDP는 2014년부터 발전 · 에너지 샘플을 도입하여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CDP 프레임워크를 통해 발전 및 에너지 기업의 기후 변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전 발전자회사를 비롯한 발전/에너지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

<sup>\* 2013</sup> 목표관리제 기준

통신





#### ETS 분류: 통신



<sup>\*</sup> CDP 2012(보고연도 2011년) 미응답

#### **▼ 인터뷰 황 창 규** kt 회장

#### "그린 ICT로 기후변화 대응의 미래와 신성장 모델을 개척하겠다"



kt는 2020년까지 2007년 대비 탄소배출량 절대치 20%를 저감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해 이를 꾸준히 실현해 나가고 있다. 중간 평가라 할 수 있는 시점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온실가스 약 10%의 저감을 달성했다. 2009년 수립한 통합 kt 중장기 탄소배출량저감 로드맵은 현재까지 청사진을 그리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kt의 이러한 지속적 순항에는 'Green kt, Green Korea'라는 환경경영 비전 아래, kt 업무환경 생태계의 친환경적 전환, kt의 ICT 기반 그린 서비스를 통한 국가 경제 전반의 친환경화, 그린 컨버전스를 통한 kt의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세부 방향성을 가지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실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그 배경으로 꼽을 수 있다. kt는 환경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별 연간과제를 발굴하여 저감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포괄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그린IDC 확대, 고효율 무선망 구축, 국사광역화 등 네트워크의 고효율화를 비롯해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 등 업무환경의 친환경화를 위한 혁신 활동 등이 그

예다.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이 발생시키는 탄소 배출량을 저 감하기 위해 빌딩전력관리시스템(BEMS), 원격검침(AMI) 등 기술의 사업화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며, 스마트그리드확산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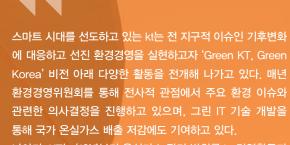
kt는 2012년부터 회사의 활동 범위와 관련된 Scope 3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kt를 기후변화 대응 의 세계적인 선도 기업으로 그 위상을 올려 놓았다. 공급망 단계, 제품 및 서비스 사용단계, 기타 배출량 (용수 · 폐기 물·임직원 출장 및 출퇴근) 등을 Scope 3로 정의하고 체 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kt 서비스가 사회적 온실가스 감 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러한 투자와 노력은 CDP에서도 증명되었다. kt는 올해 공 개점수 99점, 성과는 A밴드를 획득했다. 성과의 경우 A밴드 안에서도 최고의 점수대를 기록했다. 그 결과 올해 2년 연 속「탄소경영 아너스 클럽」(Carbon Management Honors Club에 편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의 식을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글로 벌 리더 기업들을 선정한 CDP의 「Climate Performance Leader 2014」에도 편입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수 천 개의 기업 중 189개 기업만이 등재되었고, KT는 국내 통신사로 는 유일하게, 또 유수의 글로벌 통신사 중에서도 탑 클래스 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다.

kt는 탄소배출 저감과 친환경이 핵심인 그린 ICT에서 나아가,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스마트 에너지 ICT를 완성하여 kt의 신성장 모델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국가 탄소 배출량 감축에도 기여할 것이며,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기회 창출이라는 점에서 창조경제의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 ETS 분류: 통신



**K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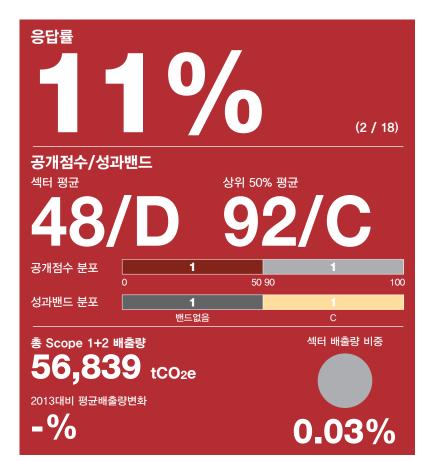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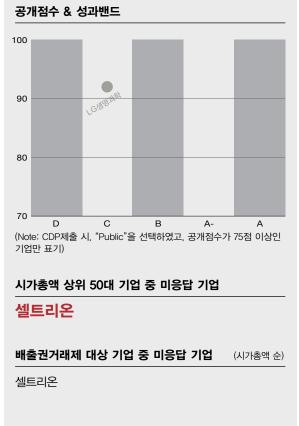
나아가, KT는 '12년부터 온실가스 관리 범위를 kt 경영활동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Scope 3까지 확대하였다. 공급망 단계 (협력사), 제품 및 서비스 사용 단계, 용수 · 폐기물 · 직원 출장 및 출퇴근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제3자 검증기관으로부터 Scope 3 배출량에 대한 검증서를 획 득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13년에 는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대상 협력사를 '12년 111개에서 149 개로 증가시켜 Scope 3 관리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KT는 기업 운영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체계적 관리 및 전사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으로 친환경 글로벌 1등 기업으로써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KT

# 제약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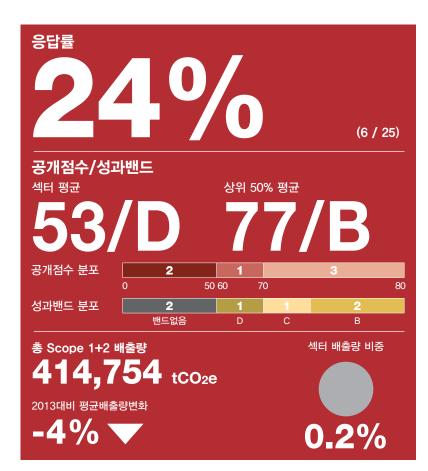
#### ETS 분류: 석유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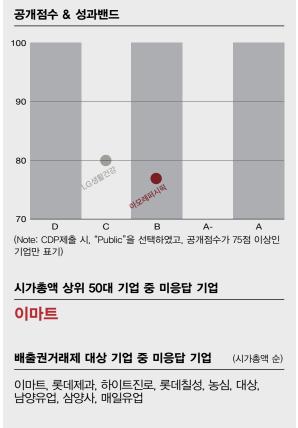




<sup>\*</sup> CDP 2012, 2013 (보고연도 2011, 2012년) 미응답

### 필수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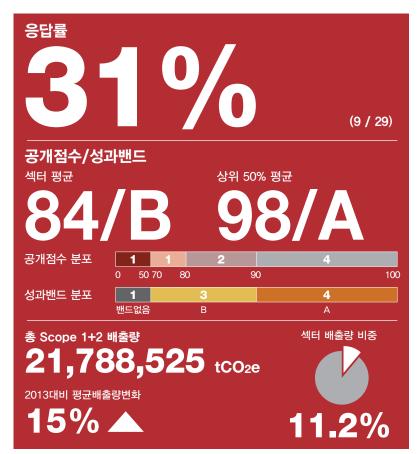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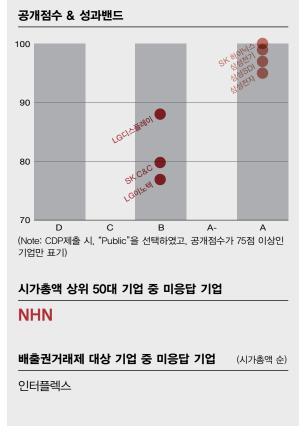
#### ETS 분류: 식음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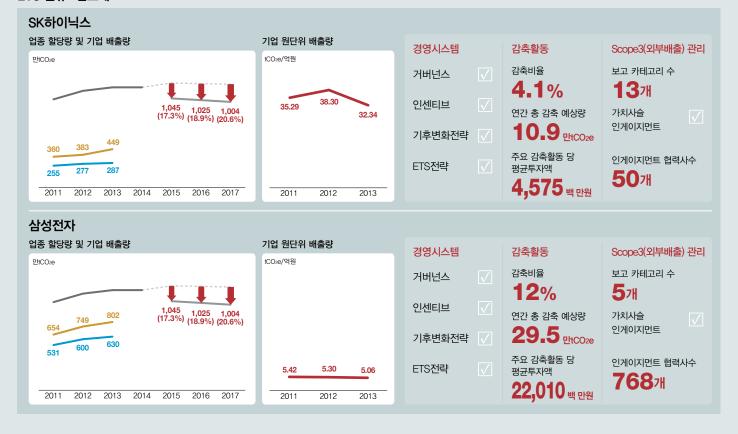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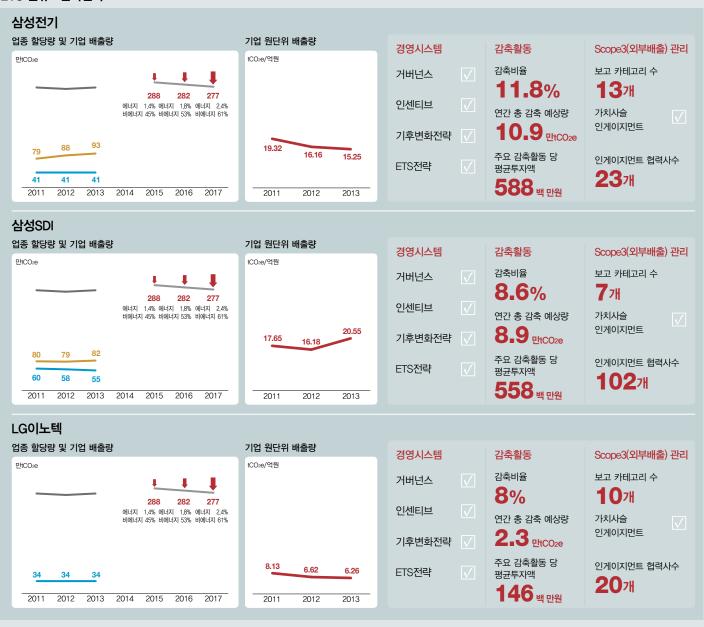
#### ETS 분류: 반도체



#### ETS 분류: 디스플레이



#### ETS 분류: 전기전자



삼성전기는 지속가능한 저탄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2008년 탄소관리 시스템, 저탄소 제품 개발,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및 그린비즈니스를 4대 축으로 하는 탄소경영전략을 마련하는 등 2015년까지 온실가스 원단위 30%를 저감하고자 하는 "COOL—SEMCO 1530」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 전략과 연계하여 비즈니스 전 과정에 탄소경영전략을 반영함으로써 최근3년간 약 천억원의 경영성과 창출과 더불어 환경정책에 부응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녹색경영 선도 기업으로 도약해 나아가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자본재, 물류, 폐기물 처리, 출장, 임차자산 등 기업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 온실가스(SCOPE 3) 배출량을 산정보고하고 있습니다. WRI/WBCSD 가이드라인을 접목하여 지속적으로 배출량 산정범위를 확장해 나감으로써 비즈니스 영업활동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삼성전기

### 정보공개 주요 통계

#### 정보공개 주요 통계

CDP 2014 Korea 250응답기업은 총 87개이며, 이 가운데 KS1 과 KS2를 제외한 모든 분석은 마감기한 이전에 제출한 85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Scope1 또는 Scope2 배출량 공개 기업 수: 온실가스 배출량을 0(zero)로 입력한 기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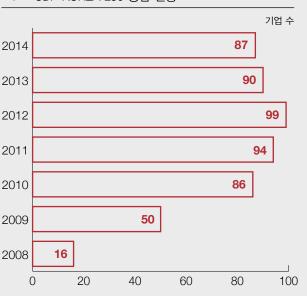
#### Climate Change Reporting Framework

기후정보공시표준화위원회(CDSB)는 기후변화관련 정보의 기업 주류 보고서 통합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제조직으로, CDP의 특별 프로젝트입니다.

CDSB의 기후변화보고프레임워크(CCRF)는 기업이 기후변화 위험/기회가 전략, 재무 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류재무 보고서를 통해 공개/연결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CCRF는 기존 재무보고서의 목적 및 비재무보고서의 방법론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통합보고의 원리를 기후변화보고에 적용하기 위한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 cdsb.net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KS 1: CDP KOREA 250 응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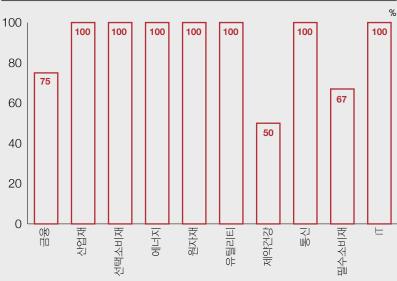
KS 2: CDP 2014 섹터별 응답률



KS 3: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기업 (Scope 1 또는 Scope 2)



KS 4: CDP 2014 섹터별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비율 (Scope 1 또는 Scope 2)



### 배출량 주요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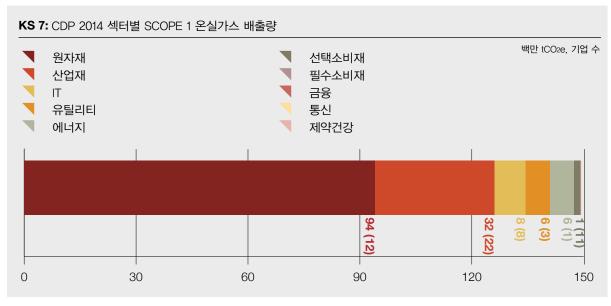
Scope 1, 2 배출량은 CDP 2013 대비 6백만 tCO2e 가 감소하였으나, 이는 보고기업 범위 및 응답기업 수의 감소에 따른 영향이 포함되어 있는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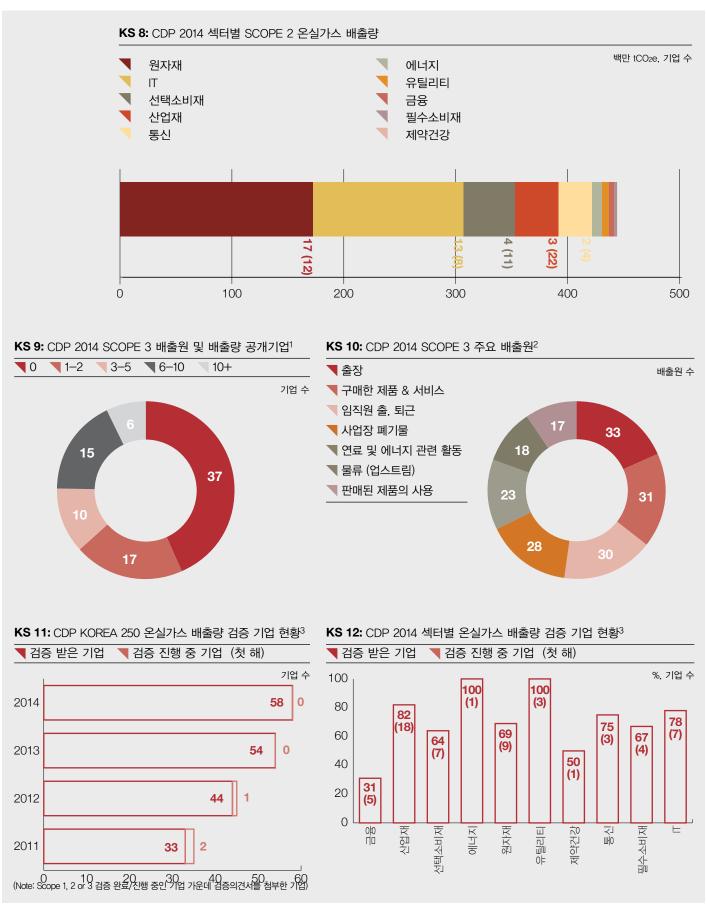
Greenhouse Gas Protocol Scope 3 Standard의 15개 카테고 리를 선택하여 입력한 기업 가운데 배출량 수치가 0(zero)이상 이며, 해당 Scope 3 카테고리가 "관련있음"을 선택한 경우에 만 분석에 포함.

"기타 업스트림" 또는 "기타 다운스트림" 항목 또한 적절한 선택될 수 있으나, 이 두 항목을 통해 보고한 Scope 3 배출은 15개 카테고리를 통해 보고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데이터 질에 대한 높은 요구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CDP는 응답서 내의 데이터에 대한 검증/보증을 권장. 본 섹션의 검증관련 통계는 기업이 첨부한 검증의견서의 평과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되었으며, "검증/보증"을 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해당 문건을 첨부하지 않았거나, 첨부문건이 CDP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점수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집계에서 제외. 해당 기업이 하나 이상의 Scope을 검증 받은 경우, 중복하지 않고 하나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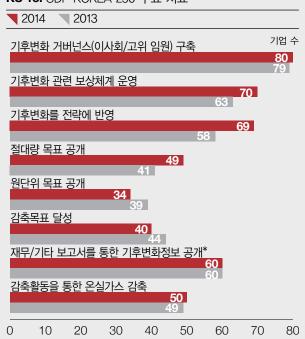


<sup>1.</sup> CDP 질의서 14.1 문항에서, 각 카테고리 별로 "relevant, calculated" 항목을 선택한 기업만 분석에 포함

<sup>2. &</sup>quot;relevant, calculated" 항목을 선택하고, 배출랑을 입력한 기업의 카테고리만 산정 3. Scope 1, 2 or 3 검증 완료/진행 중인 기업 가운데 검증의견서를 첨부한 기업

# 기후변화 성과 주요통계

#### KS 13: CDP KOREA 250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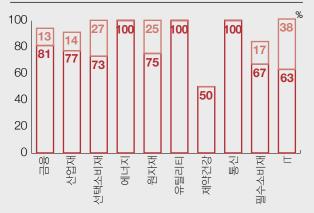
본 섹션의 온실가스감축 (절대량, 원단위)목표 관련 통계는 기 준연도, 목표연도, 감축비율, 목표설정단위(원단위 목표의 경 우)를 모두 입력한 기업만 집계.

하나이상의 감축활동, 감축목표 또는 인센티브를 입력한 기업의 경우, 각각 입력한 활동, 목표, 인센티브 의 수와 관계없이하나로 집계. (단, "절대량 감축목표와 원단위 감축목표"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경우, 절대량과 원단위 목표 카테고리에 개별적으로 하나씩 반영)

KS13의 재무/기타 보고서를 통한 기후변화 정보 공개 여부 관련 통계의 경우, 해당보고서의 실제 첨부여부와 관계없이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보고한 모두 기업 통계에 반영.

#### KS 14: 섹터별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축 기업 비율

▼ 이사/이사회 내 그룹 또는 이사회에 의해 선정된 위원회 ▼ 고위 임원



KS 15: 섹터별 기후변화 관련 보상시스템 구축 기업 비율

◥ 금전적 보상

◥ 비금전적 보상



KS 16: 섹터별 기후변화 전략반영 기업 비율



KS 17: 섹터별 절대량 목표 공개 기업 비율



#### KS 18: 섹터별 원단위 목표 공개 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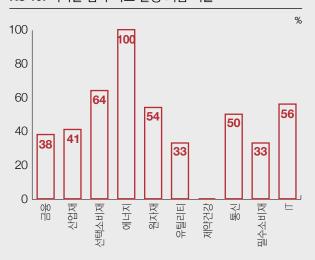


고장력 자동차 강판, 에너지 저철손 전기강판 등 고효율 철강재 보급, 철강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한 가지인 고로 수재슬래그는 친환경 시멘트 대체 소재로 공급 등 년간 CO2를 저감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 KS 19: 섹터별 감축 목표 달성 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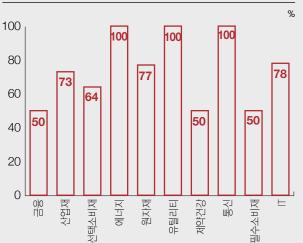


녹색선박 TCS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녹색선박 기술을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 및 기술 적용 타당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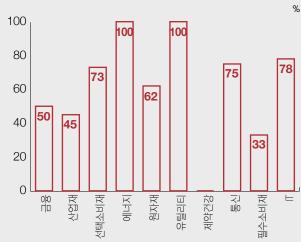
현대상선



**KS 20:** 섹터별 재무/기타 보고서를 통한 기후변화정보 공개 기업 비율<sup>1</sup>



KS 21: 섹터별 (감축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업 비율



<sup>1.</sup> 재무 또는 기타 보고서 첨부 기업만 산정

### 부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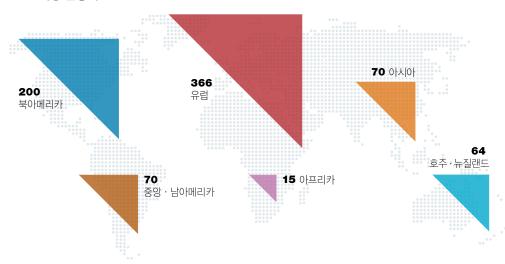
### **CDP Investor Memb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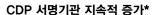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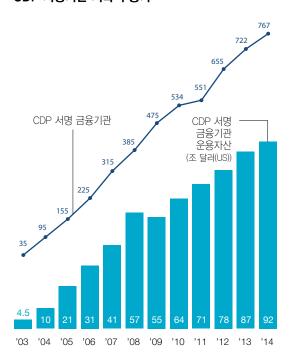
#### CDP는 글로벌 투자자들과 투자의 선진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CDP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 위험을 줄이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전세계 투 자자들과 공동으로 5,000개 이상의 기업에 기후변화 전략,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 너지 사용량 등의 정보를 표준화된 CDP 포맷을 통해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CDP 멤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DP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cdp.net/ en-US/WhatWeDo/.

#### CDP 서명 금융기관 분포







# 서명기관 유형 312 자산 운용사 256 자산 소유자(Asset owners) 152 은행 38 보험사 27 기타

#### \* CDP 기후변화 정보공개 요청서의 공식 발송일인 2014년 2월 1일 기준, 767개 글로벌 금융기관이 서명기관으로 참여하였으며, 이후 서명기관으로 참여한 금융기 관은 분포 및 유형 구분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 **CDP** investor members 2014

ABRAPP—Associação Brasileira das Entidades Fechadas de Previdência Complementar

AEGON N.V.

ATP Group

Aviva plc

Aviva Investors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Bendigo & Adelaide Bank Limited

BlackBock

Boston Common Asset Management, LLC

BP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California State Teachers' Retirement System

Calvert Investment Management, Inc.

Capricorn Investment Group, LLC

Catholic Super

CCLA Investment Management Ltd

ClearBridge Investments

**DEXUS Property Group** 

Fachesf

Fapes

Fundação Itaú Unibanco

Generation Investment Management

Goldman Sachs Group Inc.

Henderson Global Investors

HSBC Holdings plc

Infraprev KLP

Legg Mason Global Asset Management

London Pensions Fund Authority

Mobimo Holding AG

Mongeral Aegon Seguros e Previdência S/A

Morgan Stanley

National Australia Bank Limited

Neuberger Berman

Nordea Investment Management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NEI Investments** 

Petros

PFA Pension

Previ

Real Grandeza

Robeco

RobecoSAM AG

Rockefeller Asset Management, Sustainability

& Impact Investing Group Royal Bank of Canada

Royal Bank of Scotland Group

Sampension KP Livsforsikring A/S

Schroders

Scottish Widows Investment Partnership

SEB AB

Serpros

Sistel

Sompo Japan Nipponkoa Holdings, Inc

Standard Chartered

TD Asset Management

The Wellcome Trust

# **Investor signatories**

3Sisters Sustainable Management LLC

Aberdeen Asset Managers

Aberdeen Immobilien KAG mbH

ABRAPP-Associação Brasileira das Entidades Fechadas de Previdência Complementar

Achmea NV

Active Earth Investment Management

Acuity Investment Management

Addenda Capital Inc.

Advanced Investment Partners

AEGON N.V.

AEGON-INDUSTRIAL Fund Management

Co., Ltd

AIG Asset Management

AK Asset Management Inc.

Akhank T A S

Alberta Investment Management

Corporation (AIMCo)

Alberta Teachers Retirement Fund Board

Alcyone Finance

AllenbridgeEpic Investment Advisers

Limited

Alliance Trust PLC

Allianz Elementar Versicherungs-AG

Allianz Global Investors

Kapitalanlagegesellschaft mbH

Allianz Group

Altira Group

Amalgamated Bank

Amlin plc

AMP Capital Investors

AmpegaGerling Investment GmbH

Amundi AM

ANBIMA-Associação Brasileira das Entidades dos Mercados Financeiro e de

Antera Gestão de Recursos S.A.

APG

Appleseed Fund

AQEX LLC

Aquila Capital

Arisaig Partners Asia Pte Ltd

Ariuna Capital

Arkx Investment Management

Arma Portföy Yönetimi A.Ş.

Armstrong Asset Management

As You Sow

ASM Administradora de Recursos S.A.

ASN Bank

Assicurazioni Generali Spa

ATI Asset Management

Atlantic Asset Management Pty Ltd

ATP Group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Australian Ethical Investment

AustralianSuper

Avaron Asset Management AS

Aviva Investors

Aviva plc AXA Group

BAE Systems Pension Funds Investment

Management Ltd

Baillie Gifford & Co.

BaltCap

Banca Monte dei Paschi di Siena Group

Banco Bradesco S/A

Banco Comercial Português S.A.

Banco de Credito del Peru BCP

Banco de Galicia y Buenos Aires S.A.

Banco do Brasil Previdência

Banco do Brasil S/A

Banco Espírito Santo, SA

Banco Nacional de Desenvolvimento

Econômico e Social-BNDES

Banco Popular Español

Banco Sabadell, S.A.

Banco Santander

Banesprev-Fundo Banespa de Seguridade Social

Banesto

Banif, SA

Bank Handlowy w Warszawie S.A

Bank Leumi Le Israel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Bank of Montreal

Bank Vontobel AG

Bankhaus Schelhammer & Schattera Kapitalanlagegesellschaft m.b.H.

BANKIA S.A.

Bankinter

bankmecu

Banque Degroof

Banque Libano-Française

Barclavs

Basellandschaftliche Kantonalbank

BASF Sociedade de Previdência

Complemental

Basler Kantonalbank

Bâtirente

Baumann and Partners S.A.

Bavern LB

BayernInvest Kapitalanlagegesellschaft

BBC Pension Trust Ltd.

BC Investment Management Corporation

Bedfordshire Pension Fund

Beetle Capital

BEFIMMO SA

Bendigo & Adelaide Bank Limited

Bentall Kennedy

Berenberg Bank Berti Investments

BioFinance Administração de Recursos de

Terceiros Ltda

BlackBock Blom Bank SAL

Blumenthal Foundation

BNP Paribas Investment Partners

**BNY Mellon** 

BNY Mellon Service Kapitalanlage

Gesellschaft

Boardwalk Capital Management

Boston Common Asset Management, LLC

BP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Brasilprev Seguros e Previdência S/A.

767

2014년 2월 1일 기준. 767개 글로벌 금융기관 (운용자산: 92조 달러)이 CDP 2014 서명기관으로 참여하여, 기후변화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Breckenridge Capital Advisors

British Airways Pension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British Coal Staff Superannuation Scheme

Brown Advisory

**BSW Wealth Partners** 

BT Financial Group

BT Investment Management

Busan Bank

**CAAT Pension Plan** 

Cadiz Holdings Limited

CAI Corporate Assets International AG

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du Québec

Caixa de Previdência dos Funcionários do Banco do Nordeste do Brasil (CAPEF)

Caixa Econômica Federal

Caixa Geral de Depósitos

CaixaBank, S.A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California State Teachers' Retirement

System

California State Treasurer Calvert Investment Management, Inc.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CIBC) Canadian Labour Congress Staff Pension

Fund CAPESESP

Capital Innovations, LLC Capricorn Investment Group, LLC

CareSuper

Carmignac Gestion

CASER PENSIONES

Cathay Financial Holding Catherine Donnelly Foundation

Catholic Super

CBF Church of England Funds

CBRE

Cbus Superannuation Fund

CCLA Investment Management Ltd

Cedrus Asset Management

Celeste Funds Management Limited

Central Finance Board of the Methodist Church

CERES-Fundação de Seguridade Social

DZ Bank

E.Sun Financial Holding Co

Earth Capital Partners LLP

### **Investor signatories**

Challenger East Capital AB Change Investment Management East Sussex Pension Fund Christian Brothers Investment Services Ecclesiastical Investment Management Ltd. Christian Super Ecofi Investissements-Groupe Credit Cooperatif Christopher Reynolds Foundation Edward W. Hazen Foundation Church Commissioners for England EEA Group Ltd Church of England Pensions Board Eika Kapitalforvaltning AS Cl Mutual Funds' Signature Global Advisors City Developments Limited Elan Capital Partners Clean Yield Asset Management Element Investment Managers ClearBridge Investments ELETRA-Fundação Celg de Seguros e Climate Change Capital Group Ltd Previdência CM-CIC Asset Management Environment Agency Active Pension fund Colonial First State Global Asset Environmental Investment Services Asia Management Limited Comerica Incorporated Epworth Investment Management COMGEST Equilibrium Capital Group Commerzbank AG equinet Bank AG Erik Penser Fondkommission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Erste Asset Management Commonwealth Superannuation Erste Group Bank Corporation Essex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 Compton Foundation Concordia Versicherungs-Gesellschaft a.G. **ESSSuper** Confluence Capital Management LLC Ethos Foundation Connecticut Retirement Plans and Trust Etica Sqr **Funds** Eureka Funds Management Conser Invest Eurizon Capital SGR Co-operative Financial Services (CFS)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Canada Crayna Capital, LLC. Pension Plan for Clergy and Lay Workers Credit Agricole Evangelical Lutheran Foundation of Eastern Credit Suisse Canada CTBC Financial Holding Co., Ltd. Evangelisch-Luth. Kirche in Bayern Daesung Capital Management Evli Bank Plc Daiwa Asset Management Co. Ltd. F&C Investments Daiwa Securities Group Inc. FACEB-FUNDAÇÃO DE PREVIDÊNCIA Dalton Nicol Reid DOS EMPREGADOS DA CEB FAELCE-Fundacao Coelce de Seguridade Dana Investment Advisors Social Danske Bank Group FAPERS- Fundação Assistencial e de Pury Pictet Turrettini & Cie S.A. Previdenciária da Extensão Rural do Rio DekaBank Deutsche Girozentrale Grande do Sul Delta Lloyd Asset Management FASERN-Fundação COSERN de Demeter Partners Previdência Complementar Desjardins Group Federal Finance Deutsche Asset Management Fédéris Gestion d'Actifs Investmentgesellschaft mbH FIDURA Capital Consult GmbH Deutsche Bank AG FIM Asset Management Ltd Deutsche Postbank AG FIM Services Development Bank of Japan Inc. Finance S.A. 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 (DBP) Financiere de l'Echiquier Dexia Asset Management FIPECq-Fundação de Previdência **DEXUS Property Group** Complementar dos Empregados e Servidores da FINEP, do IPEA, do CNPq **DGB Financial Group** FIRA.-Banco de Mexico First Affirmative Financial Network DLM INVISTA ASSET MANAGEMENT S/A First Bank DNB ASA Domini Social Investments LLC First State Investments First State Super Donabu Insurance First Swedish National Pension Fund (AP1) Doughty Hanson & Co. Firstrand Group Limited DWS Investment GmbH Five Oceans Asset Management

Folketrygdfondet

Folksam

Fondaction CSN Fondation de Luxembourg Fondazione Cariplo Fondo Pensione Gruppo Intesa Sanpaolo-**FAPA** Fonds de Réserve pour les Retraites-FRR Forluz-Fundação Forluminas de Seguridade Social-FORLUZ Forma Futura Invest AG Fourth Swedish National Pension Fund, FRANKFURT-TRUST Investment-Gesellschaft mbH Friends Fiduciary Corporation Fubon Financial Holdings Fukoku Capital Management Inc FUNCEF-Fundação dos Economiários Federais Fundação AMPLA de Seguridade Social-Fundação Atlântico de Seguridade Social Fundação Attilio Francisco Xavier Fontana Fundação Banrisul de Seguridade Social Fundação BRDE de Previdência Complementar-ISBRE Fundação Chesf de Assistência e Seguridade Social-Fachesf Fundação Corsan-dos Funcionários da Companhia Riograndense de Saneamento Fundação de Assistência e Previdência Social do BNDES-FAPES FUNDAÇÃO ELETROBRÁS DE SEGURIDADE SOCIAL—ELETROS Fundação Itaipu BR—de Previdência e Assistência Social FUNDAÇÃO ITAUBANCO Fundação Itaúsa Industrial Fundação Promon de Previdência Social Fundação Rede Ferroviaria de Seguridade Social-Refer FUNDAÇÃO SANEPAR DE PREVIDÊNCIA E ASSISTÊNCIA SOCIAL-FUSAN Fundação Sistel de Seguridade Social (Sistel) Fundação Vale do Rio Doce de Seguridade Social-VALIA FUNDIÁGUA-FUNDAÇÃO DE PREVIDENCIA COMPLEMENTAR DA Futuregrowth Asset Management GameChange Capital LLC Garanti Bank

GEAP Fundação de Seguridade Social

Gemway Assets

General Equity Group AG

Genus Capital Management

German Equity Trust AG

Globalance Bank Ltd

Good Super

Gjensidige Forsikring ASA

Global Forestry Capital SARL

GLS Gemeinschaftsbank eG

GOOD GROWTH INSTITUT für globale

Goldman Sachs Group Inc.

Vermögensentwicklung mbH

Generali Deutschland Holding AG

Generation Investment Management

# **Investor signatories**

Governance for Owners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Fund ("GEPF"), Republic of South Africa

GPT Group

Greater Manchester Pension Fund

Green Cay Asset Management

Green Century Capital Management

GROUPAMA EMEKLİLİK A.Ş.

GROUPAMA SIGORTA A.Ş.

Groupe Crédit Coopératif

Groupe Investissement Responsable Inc.

GROUPE OF AM

Grupo Financiero Banorte SAB de CV

Grupo Santander Brasil

Gruppo Bancario Credito Valtellinese

Guardians of New Zealand Superannuation

Hang Seng Bank

Hanwha Asset Management Company

Harbour Asset Management

Harrington Investments, Inc

Harvard Management Company, Inc.

Hauck & Aufhäuser Asset Management

Hazel Capital LLP

HDFC Bank Ltd.

Healthcare of Ontario Pension Plan (HOOPP)

Heart of England Baptist Association

Helaba Invest Kapitalanlagegesellschaft

Henderson Global Investors

Hermes Fund Managers—BUT Hermes

EOS for Carbon Action

**HESTA Super** HIP Investor

Holden & Partners

HSBC Global Asset Management (Deutschland) GmbH

HSBC Holdings plc

HSBC INKA Internationale

Kapitalanlagegesellschaft mbH

HUMANIS

Hyundai Marine & Fire Insurance Co., Ltd

Hyundai Securities Co., Ltd.

**IBK Securities** 

IDBI Bank Ltd.

Illinois State Board of Investment

Ilmarinen Mutual Pension Insurance

Company Imofundos, S.A

Impax Asset Management

IndusInd Bank Ltd.

Industrial Alliance Insurance and Financial Services Inc.

Industrial Bank (A)

Industrial Bank of Korea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Industry Funds Management

Inflection Point Capital Management

Inflection Point Partners

Infrastructure Development Finance

Company ING Group N.V.

Insight Investment Management (Global) Ltd

Instituto Infraero de Seguridade Social-**INFRAPREV** 

Instituto Sebrae De Seguridade Social-**SEBRAEPREV** 

Insurance Australia Group

Integre Wealth Management of Raymond

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

IntReal KAG

Investec Asset Management

Investing for Good CIC Ltd

Investor Environmental Health Network

Irish Life Investment Managers

Itau Asset Management

Itaú Unibanco Holding S A

Janus Capital Group Inc.

Jarislowsky Fraser Limited

Jessie Smith Noyes Foundation

Jesuits in Britain

JMEPS Trustees Limited

JOHNSON & JOHNSON SOCIEDADE

**PREVIDENCIARIA** 

JPMorgan Chase & Co.

Jubitz Family Foundation

Jupiter Asset Management

Kagiso Asset Management

Kaiser Ritter Partner Privatbank AG

KB Kookmin Bank

**KBC** Asset Management

**KBC Group** 

KCPS Private Wealth Management

KDB Asset Management Co. Ltd.

KDB Daewoo Securities

Kendall Sustainable Infrastructure, LLC

Kepler Cheuvreux

KEPLER-FONDS KAG

Keva

KeyCorp

KfW Bankengruppe

Killik & Co LLP

Kiwi Income Property Trust

Kleinwort Benson Investors

KlimalNVEST

Korea Investment Management Co., Ltd.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KOTEC)

**KPA** Pension

La Banque Postale Asset Management

La Financière Responsable

La Française AM

Lampe Asset Management GmbH

Landsorganisationen i Sverige

LaSalle Investment Management

LBBW-Landesbank Baden-Württemberg

LBBW Asset Management Investmentgesellschaft mbH

LD Lønmodtagernes Dyrtidsfond

Legal and General Investment Management

Legg Mason Global Asset Management LGT Group

LGT Group Foundation

LIG Insurance

Light Green Advisors, LLC

Living Planet Fund Management Company S.A.

Lloyds Banking Group

Local Authority Pension Fund Forum

Local Government Super

Logos portföv Yönetimi A.S

London Pensions Fund Authority

Lothian Pension Fund

LUCRF Super

Lutheran Council of Great Britain

Macquarie Group Limited

MagNet Magyar Közösségi Bank Zrt.

MainFirst Bank AG

Making Dreams a Reality Financial Planning

Malakoff Médéric

MAMA Sustainable Incubation AG

Man

Mandarine Gestion

**MAPFRE** 

Maple-Brown Abbott

Marc J. Lane Investment Management, Inc.

Maryknoll Sisters

Maryland State Treasurer

Matrix Asset Management

MATRIX GROUP LTD

McLean Budden MEAG MUNICH ERGO AssetManagement

GmbH

Mediobanca Meeschaert Gestion Privée

Meiii Yasuda Life Insurance Company

Mendesprev Sociedade Previdenciária

Merck Family Fund

Mercy Investment Services, Inc.

Mergence Investment Managers

MetallRente GmbH

Metrus-Instituto de Seguridade Social Metzler Asset Management Gmbh

MFS Investment Management

Midas International Asset Management, Ltd. Miller/Howard Investments, Inc.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Mirae Asset Securities Co., Ltd

Mirova

Mirvac Group Ltd

Missionary Oblates of Mary Immaculate Mistra, Foundation for Strategic

Environmental Research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Mitsui Sumitomo Insurance Co.,Ltd

Mizuho Financial Group, Inc.

Mobimo Holding AG

Momentum Manager of Managers (Pty) Limited

Momentum Manager of Managers (Pty) Ltd Monega Kapitalanlagegesellschaft mbH

Mutual Insurance Company Pension-Fennia

Mongeral Aegon Seguros e Previdência S/A Morgan Stanley

Mountain Cleantech AG

MTAA Superannuation Fund Munich Re

### 부록

### **Investor signatories**

Nanuk Asset Management Natcan Investment Management Nathan Cummings Foundation, The National Australia Bank Limited National Bank of Canada NATIONAL BANK OF GREECE'S A National Grid Electricity Group of the Electricity Supply Pension Scheme National Grid UK Pension Scheme National Pensions Reserve Fund of Ireland National Union of Public and General Employees (NUPGE) Nativus Sustainable Investments **NATIXIS** Natural Investments LLC Nedbank Limited Needmor Fund **NEI Investments** Nelson Capital Management, LLC Nest Sammelstiftung Neuberger Berman New Alternatives Fund Inc. New Amsterdam Partners LLC **New Forests** New Mexico State Treasurer New Resource Bank New York City Employees Retirement System New York City Teachers Retirement System New York State Common Retirement Fund (NYSCRF) Newground Social Investment Newton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NGS Super NH-CA Asset Management Company Nikko Asset Management Co., Ltd. Nipponkoa Insurance Company, Ltd. Nissay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NORD/LB Kapitalanlagegesellschaft AG Nordea Investment Management Norfolk Pension Fund 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North Carolina Retirement System Northern Ireland Local Government Officers' Superannuation Committee (NILGOSC) NORTHERN STAR GROUP Northern Trust NorthStar Asset Management, Inc Northward Capital Pty Ltd Nykredit OceanRock Investments Oddo & Cie oeco capital Lebensversicherung AG ÖKOWORLD Old Mutual plc OMERS Administration Corporation Ontario Pension Board

Ontario Teachers' Pension Plan

Oppenheim Fonds Trust GmbH

Oppenheim & Co. Limited

Church Endowment)

OP Fund Management Company Ltd

Opplysningsvesenets fond (The Norwegian

**OPTrust** Oregon State Treasurer Orion Energy Systems Osmosis Investment Management Panahpur Park Foundation Parnassus Investments Pax World Funds Pensioenfonds Vervoer Pension Denmark Pension Fund for Danish Lawyers and **Economists** Pension Protection Fund People's Choice Credit Union Perpetual PETROS-The Fundação Petrobras de Seguridade Social PFA Pension PGGM Vermogensbeheer Phillips, Hager & North Investment Management PhiTrust Active Investors Pictet Asset Management SA Pinstripe Management GmbH Pioneer Investments PIRAEUS BANK PKA Pluris Sustainable Investments SA PNC Financial Services Group, Inc. Pohjola Asset Management Ltd Polden-Puckham Charitable Foundation Portfolio 21 Porto Seguro S.A. POSTALIS-Instituto de Seguridade Social dos Correios e Telégrafos Power Finance Corporation Limited PREVHAB PREVIDÊNCIA COMPLEMENTAR PREVI Caixa de Previdência dos Funcionários do Banco do Brasil PREVIG Sociedade de Previdência Complementar Prius Partners Progressive Asset Management, Inc. Provinzial Rheinland Holding Prudential Investment Management Prudential Plc Psagot Investment House Ltd Public Sector Pension Investment Board Q Capital Partners Co. Ltd QBE Insurance Group Quilter Cheviot Asset Management Quotient Investors Raiffeisen Fund Management Hungary Ltd. Raiffeisen Kapitalanlage-Gesellschaft Raiffeisen Schweiz Genossenschaft Rathbones / Rathbone Greenbank RCM (Allianz Global Investors) Real Grandeza Fundação de Previdência e

Assistência Social

**REI Super** 

Reliance Capital Limited Representative Body of the Church in Wales Resolution Resona Bank, Limited Reynders McVeigh Capital Management River Twice Capital Advisors, LLC Robeco RobecoSAM AG Robert & Patricia Switzer Foundation Rockefeller Asset Management. Sustainability & Impact Investing Group Rose Foundation for Communities and the Environment Rothschild & Cie Gestion Group Royal Bank of Canada Royal Bank of Scotland Group Royal London Asset Management RPMI Railpen Investments RREEF Investment GmbH Russell Investments Sampension KP Livsforsikring A/S Samsung Asset Management Co., Ltd.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Co., Ltd. Samsung Securities Samsunglife Insurance Sanlam Life Insurance Ltd. Santa Fé Portfolios I tda Santam Sarasin & Cie AG Sarasin & Partners SAS Trustee Corporation Sauren Finanzdienstleistungen GmbH & Co. KG Schroders Scotiabank Scottish Widows Investment Partnership Second Swedish National Pension Fund Şekerbank T.A.Ş. Seligson & Co Fund Management Plc Sentinel Investments SERPROS-Fundo Multipatrocinado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Pension Fund Servite Friars Seventh Swedish National Pension Fund (AP7) Shinhan Bank Shinhan BNP Paribas Investment Trust Management Co., Ltd Shinkin Asset Management Co., Ltd Siemens Kapitalanlagegesellschaft mbH Signet Capital Management Ltd Sisters of St Francis of Philadelphia Sisters of St. Dominic Skandia Smith Pierce, LLC SNS Asset Management Sociedade de Previdencia Complementar

da Dataprev-Prevdata

Socrates Fund Management

Società reale mutua di assicurazioni

## 부록 I Investor signatories

Solaris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Sompo Japan Nipponkoa Holdings, Inc

Sonen Capital

Sopher Investment Management

Soprise! Impact Fund

SouthPeak Investment Management

SPF Beheer by

Spring Water Asset Management

Sprucegrove Investment Management Ltd

Standard Chartered

Standard Chartered Korea Limited

Standard Life Investments

Standish Mellon Asset Management

State Bank of India

State Board of Administration (SBA) of

Florida

State Street Corporation

StatewideSuper

Stockland

Storebrand ASA

Strathclyde Pension Fund

Stratus Group

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

Sumitomo Mitsui Trust Holdings, Inc.

Sun Life Financial

Superfund Asset Management GmbH

SURA Peru (AFP Integra, Seguros SURA, Fondos SURA, Hipotecaria SURA)

SUSI Partners AG

Sustainable Capital

Sustainable Development Capital

Sustainable Insight Capital Management

Svenska kyrkan

Svenska kyrkans pensionskassa

Swedbank AB

Swedish Pensions Agency

Swift Foundation

Swiss Re

Swisscanto Asset Management AG

Sycomore Asset Management

Syntrus Achmea Asset Management

T. Rowe Price

T. SINAİ KALKINMA BANKASI A.Ş.

Tata Capital Limited

TD Asset Management (TD Asset Management Inc. and TDAM USA Inc.)

Teachers Insurance and Annuity
Association—College Retirement Equities

Telluride Association

Telstra Super

Tempis Asset Management Co. Ltd

Terra Global Capital, LLC

TerraVerde Capital Management LLC

TfL Pension Fund

The ASB Community Trust

The Brainerd Foundation

The Bullitt Foundation

The Central Church Fund of Finland

The Children's Investment Fund

Management (UK) LLP

The Collins Foundation

The Co-operative Asset Management

The Co-operators Group Ltd

The Council of Lutheran Churches

The Daly Foundation

The Environmental Investment Partnership

The Hartford Financial Services Group

The Joseph Rowntree Charitable Trust

The Korea Teachers Pension (KTP)

The New School

The Oppenheimer Group

The Pension Plan For Employees of the Public Service Alliance of Canada

The Pinch Group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The Russell Family Foundation

The Sandy River Charitable Foundation

The Shiga Bank, Ltd

The Sisters of St. Ann

The Sustainability Group at the Loring, Wolcott & Coolidge Office

The United Church of Canada—General Council

The University of Edinburgh Endowment Fund

The Wellcome Trust

Third Swedish National Pension Fund (AP3)

Threadneedle Asset Management

TOBAM

Tokio Marine Holdings, Inc

Toronto Atmospheric Fund

Trillium Asset Management, LLC

Triodos Investment Management
Tri-State Coalition for Responsible

Investment

Trust Waikato

Trusteam Finance

Trustees of Donations to the Protestant

Episcopal Church

Tryg

Turner Investments

UBS

UniCredit SpA

Union Asset Management Holding AG

Union Investment Privatfonds GmbH

Unione di Banche Italiane S.c.p.a.

Unioner

Unipension Fondsmaeglerselskab A/S

UNISONS Staff Pension Scheme

UniSuper

Unitarian Universalist Association

United Church Funds

United Nations Foundation

Unity College

Unity Trust Bank

Universities Superannuation Scheme (USS)

Van Lanschot

Vancity Group of Companies

VCH Vermögensverwaltung AG

Ventas, Inc.

Veris Wealth Partners

Veritas Investment Trust GmbH

Vermont State Treasurer

Vexiom Capital Group, Inc.

VicSuper

Victorian Funds Management Corporation

VietNam Holding Ltd.

Vinva Investment Management

VOIGT & COLL. GMBH

VOLKSBANK INVESTMENTS

Walden Asset Management

WARBURG-HENDERSON

Kapitalanlagegesellschaft für Immobilien

mbH WARBURG INVEST

KAPITALANLAGEGESELLSCHAFT MBH

Water Asset Management, LLC

Wells Fargo & Company

Wespath Investment Management

West Midlands Pension Fund

West Yorkshire Pension Fund

Westfield Capital Management Company,

WestLB Mellon Asset Management (WMAM)

Westpac Banking Corporation

WHEB Asset Management

White Owl Capital AG Wisconsin, Iowa, & Minnesota Coalition for

Responsible Investment

Woori Bank Woori Investment & Securities Co., Ltd.

VVOOITIIIVESIITIE

YES BANK Ltd.

York University Pension Fund

Youville Provident Fund Inc.

Zegora Investment Management Zevin Asset Management, LL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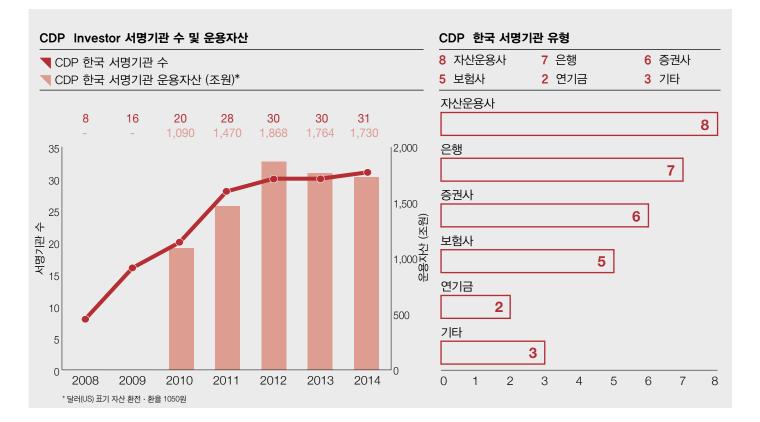
Zürcher Kantonalbank

# 부록 II CDP Korea investor signatories

31

2014년 7월 1일 기준, 31개의 국 내 금융기관 (운용자산: 1,730조 원)이 CDP 2014의 서명기관으로 참여하여 기후변화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대구은행 대성투자자문 대우증권 동부화재 마이다스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부산은행 사학연금 삼성생명 삼성자산운용 삼성증권 삼성화재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템피스투자자문
한국기술보증기금
한국투자신탁운용
한화자산운용
현대증권
현대해상화재
IBK증권
KB국민은행
KDB자산운용
LIG손해보험
NH-CA자산운용



# 부록 Ⅲ CDP 2014 그룹사별 참여현황

그룹명	응답여부	기업명
삼성	응답	삼성물산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화재
		 삼성전자
		삼성테크윈
		삼성 <del>중공</del> 업
		제일기획
		삼성정밀화학
		 제일모직
		호텔신라
		삼성생명
		 삼성증권
	무응답	 삼성카드
		 에스원
LG	응답	LG전자
		 LG화학
		LG이노텍
		LG유플러스
		LG디스플레이
		(주)LG
		LG생명과학
		LG하우시스
		LG생활건강
		LG상사
SK	응답	SK 하이닉스
		SK C&C
		SK텔레콤
		SK케미칼
		SK브로드밴드
	무응답	SK이노베이션*
		SK(주)∗
		SKC*
		SK네트웍스*
		SK가스*
현대자동차	응답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무응답	글로비스*
		기아자동차*
		현대하이스코*
		현대위아*
		 현대로템

그룹명	응답여부	기업명
cu	응답	CJ제일제당
ω	<del></del> 무응답	이제일제당 이대한통은*
	<del>7</del> 68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CJ CGV*
		CJ(₹)*
		CJ E&M*
롯데	응답	
大네	ᅙᆸ	롯데쇼핑
	 무응답	롯데제과*
	구등답	<u> </u>
		롯데설성** 롯데삼강 <b>*</b>
		롯데하이마트*
	OC!	
두산	응답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주)두산
		두산엔진
		구선엔선 두산건설*
<b>포스코</b>	무응답	구신신설** 
포스코	응답  무응답	다우인터내셔널 <b>*</b>
	<del>7</del> 68	프스코 ICT*
		포스코켐텍*
		포스코플랜텍*
GS	 응답	GS건설
us		(주)GS*
	<del>⊺</del> 58	(干/GS** GS喜쇼핑*
		GS리테일
현대백화점	 무응답	
한테국의급	Тон	현대구의급** 현대그린푸드 <b>*</b>
		현대 <u>과</u> 년구드** 현대홈쇼핑 <b>*</b>
		현대음쇼당 현대HCN
 한화	 응답	한화케미칼
단최	он	(주)한화
	 무응답	<u>(구)인외</u> 한화생명
현대	응답	현대상선
언네	ᅙᆸ	
	ㅁ으다	현대엘리베이터*
LS	무응답  응답	LS산전
w	 무응답	(주)LS**
	ᅮᇹᆸ	(수)LS** E1*
ユテハレハルト	으다	
금호아시아나	응답 	금호석유화학
	무응답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메돌 전기네시	1410718	* 25 AIS 52 NOF
그룹명	응답여부	기업명
녹십자	응답	녹십자
	무응답	녹십자홀딩스*
		녹십자셀
우리금융	응답	우리금융지주
	무응답	우리투자증권
		우리파이낸셜
한국전력	응답	한국전력공사
	무응답	한전KPS <b>*</b>
		한전기술*
현대중공업	응답	현대 <del>중공</del> 업
	무응답	현대미포조선*
메리츠금융	무응답	메리츠화재 <b>*</b>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종금증권
신세계	무응답	신세계 <b>*</b>
		이마트 <b>*</b>
태영	무응답	SBS*
		 태영건설 <b>*</b>
		SBS미디어홀딩스
산업은행	응답	대우건설
		대우증권
아모레퍼시픽	응답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그룹
한국타이어	응답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한진	응답	한진해운
		대한한공
KT	응답	KT
	무응답	KT스카이라이프*
동아쏘시오	무응답	동아제약
		동아ST
세아	무응답	세아베스틸*
		세아제강*
영원무역	무응답	영원무역홀딩스*
		영원무역*
영풍	무응답	고려아연*
		 영풍 <b>*</b>

부록 Ⅳ 그룹사별 배출권거래제 및 CDP 대상 기업 배출량

그룹명	ETS 대상기업 수	ETS&CDP 대상기업 수	ETS&CDP 응답기업 수	ETS 대상 기업 배출량 총합 (천tCO2e)	CDP 응답기업 2013 배출량 총합 (천tCO <sub>2</sub> e)*	CDP 미응답 기업 2013 배출량 총합 (천tCO2e)*	CDP 미대상기업 2013 배출량 총합 (천tCO <sub>2</sub> e)*
한국전력	8	1	2	220,721	44,648 (20%)	-	176,073 (80%)
포스코	8	2	1	86,855	71,639 (82%)	2,087 (2%)	13,129 (15%)
SK	16	7	4	20,999	4,325 (21%)	985 (5%)	15,689 (75%)
현대자동차	10	5	2	18,996	17,712 (93%)	898 (5%)	387 (2%)
삼성	10	7	7	17,575	8,500 (48%)	-	9,075 (52%)
LG	11	7	7	17,297	16,137 (93%)	-	1,160 (7%)
GS	5	0	0	13,660	-	-	13,660 (100%)
롯데	10	4	2	7,312	6,668 (91%)	253 (3%)	390 (5%)
S-Oil	1	1	1	7,293	7,293 (100%)	-	- (0%)
현대중공업	4	2	1	6,188	946 (15%)	193 (3%)	5,049 (82%)
한화	4	2	2	5,941	2,220 (37%)	-	3,721 (63%)
한국지역난방공사	2	1	1	5,404	4,937 (91%)	-	467 (9%)
OCI	7	1	0	4,614	-	2,571 (56%)	2,043 (44%)
영풍	5	2	0	4,107	-	3,954 (96%)	100 (2%)
금호아시아나	7	3	1	3,787	2,138 (56%)	628 (17%)	1,021 (27%)
동부	6	0	0	3,035	-	-	-
동국제강	2	1	0	2,108	-	1,794 (85%)	314 (15%)
세아	3	2	0	1,394	-	1,366 (98%)	28 (2%)
효성	1	1	1	1,349	1,349 (100%)	-	-
KCC	2	1	1	1,267	1,179 (93%)	-	88 (7%)
KT	1	1	1	1,099	1,099 (100%)	-	- (0%)
LS	5	0	0	877	-	-	877 (100%)
코오롱	3	1	0	868	-	736 (85%)	132 (15%)
신세계	2	2	0	643	-	643 (100%)	-
한진	1	1	1	632	632 (100%)	-	-
한국타이어	2	1	1	565	535 (95%)	-	31 (5%)
두산	4	4	4	515	493 (96%)	-	-
CJ	1	1	1	311	311 (100%)		-
대림	2	1	1	206	177 (86%)	-	29 (14%)
하이트진로	1	1	0	175	-	-	175 (100%)
한라	1	1	0	146	-	146 (100%)	-
삼천리	1	1	0	58	-	58 (100%)	-
아모레퍼시픽	1	0	0	40	-	-	40 (100%)
비스테온	1	1	0	34	-	34 (100%)	-
KT&G	1	1	1	30	30 (100%)	-	-

<sup>\*</sup> ETS 대상기업 중 CDP 응답, 미응답, 미대상 기업. 배출랑은 2013 목표관리제 기준 산정.

## 부록 V 자발적 참여기업

CDP Korea 250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250대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CDP 대상 기업이 아님에도 자사의 기후변화정보를 CDP를 통해 공개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올해에도 꾸준하게 이어졌다. 심텍, 한국 동서발전, 한국철도공사, 한화그룹은 3년 연속으로 자발적으로 CDP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영섬유와 SK건설은 올해 처음으로 CDP를 통해 자사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개하였다.

특히, 한국동서발전과 SK건설은 높은 정보공개 수준을 보여 CDP한국위원회에서 제정한 CDP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기업명
1	심텍
2	유영섬유
3	한국동서발전
4	한국철도공사
5	한화그룹
6	SK건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 🗯 🤅										<b>상 기업 **</b> 3년 이	상 연속 미응답			
										紫豐	촕 治	쁆출원		
										<u> </u>	2 素	3 #		sat.
	<del></del>	-tra	JL.	က	2	=	0	8	<sub>∞</sub>	Scope	Scope	Scope 보고 수	wio.	감축목표
기업명	<u>취</u> 교	可 00	삶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တိ	Š	SH SH	Ku Ku	器
강원랜드	선택소비재	응답	비공개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게임빌	Π	무응답		무응답										
고려아연 *	원자재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고려제강 *	원자재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무응답	응답거부							
골프존 *	Π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글로비스 *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금호석유화학	원자재	응답	_	응답	응답	응답	응답			1,752,962	380,300			절대량
금호타이어 *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기아자동차 *	선택소비재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기업은행	금융	응답	86 C	응답	응답	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무응답	13,070	49,784	1	VAR S1, S2	절대량
남양유업 *	필수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내츄럴엔도텍	제약건강	무응답												
넥센타이어	선택소비재	응답	_	응답	응답	응답(L)	응답거부			36,213	82,727		VAR S1, S2	절대량
녹십자	제약건강	응답	-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L)			_	_			
녹십자셀	제약건강	무응답												
녹십자홀딩스 *	제약건강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농심 *	필수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L)						
다우기술	П	무응답		무응답										
다음 커뮤니케이션 *	Π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무응답							
대교 *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대덕전자	Π	응답	-	응답	응답					277	28,944			절대량
대림산업	산업재	응답	-	응답	응답(L)	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20,718	33,149	2	VAA S1, S2, S3	원단위
대상 *	필수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대신증권	금융	응답	비공개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대우건설	산업재	응답	94 B	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13,503	57,148	6	VAA S1, S2, S3	절대량
대우인터내셔널 *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대우조선해양	산업재	응답	-	응답	응답(L)	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176,879	238,410		VAA S1, S2	절대량
대우증권	금융	응답	81 C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무응답	1,113	13,898	2		
대웅제약	제약건강	무응답			무응답									
대원강업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대한한공	산업재	응답	비공개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거부					
덕산하이메탈 *	П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동국제강 *	원자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동부화재	금융	응답	_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3,148	28,374	2	VAA S1, S2 VAR S3	절대량
동서 *	필수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무응답							
동아ST	제약건강	무응답			-									
동아제약	제약건강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	응답	응답(L)							
동양생명 *	금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동원산업 *	필수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주)두산	산업재	응답	비공개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두산건설 *	산업재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L)							
두산엔진	산업재	응답	_	응답	응답					15,616	14,687		VAR S1, S2	
두산인프라코어	산업재	응답	75 C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거부	41,188	120,900	_	VAA S1, S2	절대량
두산중공업	산업재	응답	91 A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L)	응답	122,344	152,181	2	VAA S1, S2	절대량
락앤락 *	원자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L)								
롯데삼강 *	필수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_								
롯데쇼핑	선택소비재	응답	87 C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거부	126,280	656,504		VAA S1, S2	절대량
롯데제과 *	필수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롯데칠성 *	필수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롯데케미칼	원자재	응답	85 B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거부		4,416,747	1,469,071		VAA S1, S2	원단위
롯데하이마트 *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만도 *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매일유업	필수소비재	무응답												
맥쿼리인프라 *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메가스터디 *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베르르카테에 테이커티 · # 이번 이													10 67 908	
-lord	Ti di	מֿט	<b>\</b>	2013	2012	Æ	2010	2009	2008	Scope 1 백출량	Scope 2 배출량	Scope 3 배출원 보고 수	Klo	감축목표
기업명	<u>취</u>	回 00	쌂	50		2011	50	20	50	й	တိ	었퍼	KIO KIO	范
메디톡스	제약건강	무응답												
메디포스트	제약건강	무응답		무응답										
메리츠금융지주	금융	무응답												
메리츠종금증권	금융	무응답												
메리츠화재 *	금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학	필수소비재	무응답												
미래에셋증권	금융	응답	_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무응답		3,170	1		
바이로메드	제약건강	무응답												
빙그레	필수소비재	무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거부							
삼성SDI	П	응답	97 A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86,020	733,830	_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삼성물산	산업재	응답	100 A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거부	응답거부	21,273	41,171	8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삼성생명	금융	응답	_	응답	응답(L)	응답거부				47,479	106,298		VAA S1, S2	절대량
삼성엔지니어링	산업재	응답	97 A-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249,240	16,239	10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삼성전기	Π	응답	99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64,481	868,518	_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삼성전자	ΙΤ	응답	95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2,221,000	5,797,000	5	VAA S1, S2, S3	원단위
삼성정밀화학	원자재	응답	비공개	응답	응답(L)	응답	응답거부							
삼성 <del>중공</del> 업	산업재	응답	91 B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거부	응답거부	246,424	237,831	6	VAA S1, S2	절대량
삼성증권	금융	응답	_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거부	무응답	1,187	6,293		VAR S1, S2	
삼성카드	금융	무응답		무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거부	무응답					
삼성테크윈	산업재	응답	82 B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14,231	62,527	10	VAA S1, S2	절대량&원단위
삼성화재	금융	응답	90 A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거부	무응답	5,550	27,555	4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삼양사 *	필수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								
삼천리 *	유틸리티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서부T&D *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서울가스	유틸리티	무응답												
서울반도체 *	П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	응답(L)							
성광벤드 *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무응답							
성우하이텍	선택소비재	무응답		응답	무응답	무응답								
세방전지 *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세아베스틸 *	원자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세아제강 *	원자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셀트리온 *	제약건강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L)							
솔브레인 *	원자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100	0 11(1)							
신도리코 *	П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신세계 *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신세계인터내셔날 *				무응답	무응답	00/11	86711	00/11	88,11					
신한금융지주	금융	응답	98 A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L)	17,647	88,016	10	VAA S1, S2, S3	절대량
쌍용양회	원자재	무응답	00 A	0.0	응답거부	38	3 B(L)	3 = (L)	3 B(L)	17,047	30,010		., , , , , , , , , , , , , , , , , , ,	2-110
쌍용자동차 *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씨젠 *	제약건강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_								
아모레퍼시픽	필수소비재	응답	77 B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8,053	23,125		VAA S1, S2	원단위
아시아나항공	실구조미제 산업재	무응답	II D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거부		0,003	۷۵,۱۷۵		VAM 01, 02	브린케
아이마켓코리아 *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0 H(L)	0日/1구						
					Тон	OH기구								
안랩 에스원	IT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OEHI \	으다	0 EH(1 \	OEH/1 \				-		
		무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에이블씨엔씨	필수소비재			무응답		-								
엑토즈소프트	IT MEH A DITU	무응답		DOFF	DOF	-								
영원무역 *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OFFILE							
영원무역홀딩스 *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EIO51	응답거부					-		
영풍 *	원자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오뚜기 *	필수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OFIELE						
오리온	필수소비재		비공개		응답(L)	응답(L)	응답(L)	응답거부						
	선택소비재			무응답	0=:4.)	0=1(1)	0='	0=(1)	0=1					
우리금융지주	금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거부					
우리투자증권	금융	무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	응답(L)						

										<b>前0</b>	前0	ਗ਼।		
										e 1 배출량	e 2 배출량	e 3 배출원 수		規
기업명	A 교	立国 0 0	사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Scope	Scope	Scope 보고 수	K 0	감축목표
우리파이낸셜	금융	무응답												
웅진케미칼	선택소비재	무응답			응답									
원익IPS *	IT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메이드	П	무응답		무응답										
유한양행 *	제약건강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L)						
이마트 *	필수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인터플렉스	Π	무응답		무응답										
일양약품 *	제약건강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일진디스플레이	Π	무응답		무응답										
제일기획	선택소비재	응답	77 C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거부	응답거부		940	1,376		VAA S1, S2	원단위
제일모직	원자재	응답	비공개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젬백스&카엘 *	Π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종근당홀딩스	제약건강	무응답												
㈜아모레퍼시픽그룹	필수소비재	응답	-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8,053	23,125		VAA S1, S2	원단위
차바이오앤 *	제약건강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카프로 *	원자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컴투스	П	무응답		무응답										
코리안리 *	금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코스맥스	필수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코오롱인더스트리 *	원자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코웨이	선택소비재	응답	97 A-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256	5,389	9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키움증권 *	금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태광 *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태광산업 *	원자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태영건설 *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태웅 *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파라다이스 *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파트론	Π	응답(L)		무응답										
포스코	원자재	응답	96 B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70,702,000	4,079,000	7	VAA S1, S2, S3	원단위
포스코 ICT *	П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무응답							
포스코켐텍 *	원자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_		
포스코플랜텍 *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풍산	원자재	응답	비공개	응답	응답	응답	응답거부	0-16)	0-1					
하나금융지주	금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L)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			_		
하나투어 *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_		
하이트진로 *	필수소비재	무응답	04 5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051/1)	051/1)	OF	200 512	050.010	_	\\\\\\\\\\\\\\\\\\\\\\\\\\\\\\\\\\\\\\	TIGUTA
한국가스공사	유틸리티	응답	81 B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329,512	352,916	_	VAA S1, S2	절대량
한국금융지주 *	금융	무응답	07.5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OF	1 000 170	101 100	0	\/AA C1 CC	저다니그는
한국전력공사	유틸리티	응답	97 B	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L)	응답	1,308,176	131,489		VAA S1, S2	절대량
한국지역난방공사	유틸리티	응답	95 A	응답	응답	응답				4,835,778	101,595	5	VAA S1, S2	원단위
한국콜마	필수소비재	무응답	04 D	무응답 응답	응답(L)	OEI	0 EH(1 )	O타기H		252.242	050 454	5	\/AA C1 CO	의다이
한국타이어 하구타이어워드아이드	선택소비재 그으	응답	94 B 비고개		으타(L)	응답	응답(L)	응답거부		252,343	952,451	Ü	VAA S1, S2	원단위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응답	비공개	응답	D0E1			_				-		
한국항공우주 *	산업재 IT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		
한글과컴퓨터		무응답		으다	으다	으다() \	으다()							
한라비스테온공조 한미약품 *	선택소비재	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으다기브						
한미약품 **	제약건강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L)	응답거부						
한섬 <b>*</b>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_	비고게		구등답			-						
한세실업 하소제지	선택소비재	응답	비공개	응답	ㅁ으다	으다기터	으다기버							
한솔제지 하제/DC *	원자재	응답(L)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		
한전KPS *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		
한전기술 *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OCHIH							
한진중공업 *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OFFILE	DOFL	0.074.004	00.701	2	\/AA C1 CC	
한진해운	산업재	응답	_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거부	누승납	8,971,824	66,701	2	VAA S1, S2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 🗰 3년						
기업명	国家	ப் <u>ப</u> 0 0	사	2013	2012	2011	2010	5009	2008	Scope 1 배출량	Scope 2 배출량	Scope 3 배출원 보고 수	KI 0 X	삼 사		
(주)한화	원자재	응답	_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65,756	31,738		VAA S1, S2	절대량		
<u> </u>	금융	무응답		응답	응답(L)	무응답	0 11(1)	00(0)	01	30,700	01,100		77 7 7 7 7 7	E 110		
한화케미칼	원자재	응답	91 B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314.582	1,808,208		VAA S1, S2	원단위		
현대HCN	선택소비재	무응답		-	0_(,		32()	02()		. ,	,,		.,.			
현대건설	산업재	응답	100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14,090	37,568	10	VAA S1, S2, S3	절대량		
현대그린푸드 *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			, ,			
현대로템	산업재	무응답														
현대모비스	선택소비재	응답	92 B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거부	51,615	325,629	2	VAA S1, S2 VAR S3	원단위		
현대미포조선 *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현대백화점 *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현대산업개발	산업재	무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거부	응답거부							
현대상사 *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현대상선	산업재	응답	89 B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6,303,853	27,758	2	VAA S1, S2	원단위		
현대엘리베이터 *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	,		. ,						
현대위아 *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현대자동차	선택소비재	응답	81 B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841 978	1,598,307	1	VAA S1, S2	원단위		
현대제철	원자재	응답	96 A-		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11,241,345			VAA S1, S2, S3	절대량		
현대중공업	산업재	응답	_	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	응답거부	무응답	393,140	552,964	_	VAA S1, S2	절대량		
현대증권	금융	응답	_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응답(L)	100	134	9,051		7, 7, 7, 0,	절대량		
현대하이스코 *	 원자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0 H(L)		104	0,001			240		
현대해상	금융	응답	82 C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응답(L)		2,951	20,262	1		원단위		
현대홈쇼핑 *	선택소비재	무응답	OL O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08	0 H (L)		2,001	20,202	-		2011		
호텔신라	선택소비재	응답	_	응답	응답(L)	응답	무응답			4,138	10,496		VAR S1, S2	절대량		
효성	원자재	응답	비공개	응답	응답(L)	응답		응답거부		4,100	10,450	-	VAIX OI, OZ	2410		
<u> </u>	원자재	무응답	10/11	무응답	무응답	0 11	0 H(L)	0H/IT				-				
<u>~~</u> 휠라코리아 *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휴켐스 *	원자재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	응답(L)					_				
BS금융지주	금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_	_					
CJ CGV *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으며(나)	으며(L)				-				
CJ E&M *	선택소비재					T01						-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OCHIH	OCHIH	OCHIH				-				
CJ대한통운 * CJ오쇼핑 *	산업재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				
							응답거부	OFFIH		150.070	150.504	-	\/AA C1 C0	저리다		
CJM일제당	필수소비재	응답	_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거부		153,376	156,534	-	VAA S1, S2	절대량		
CJ(주) *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L)	_				_				
CJ헬로비전	선택소비재		70.0	무응답	OFL	OFL	OFV.)	OFW.		0.000	00.054	-	\/AA 04 00 00	OLETO!		
DGB금융지주	금융	응답	79 C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2,096	28,051	5	VAA S1, S2, S3	원단위		
E1 *	유틸리티	무응답		무응답	E OF		응답거부	_				_				
GKL *	선택소비재	_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OFINIA	OFILIN								
(주)GS *	에너지	무응답	00.0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OFINIE	04.004	47.070		\\\\\\\\\\\\\\\\\\\\\\\\\\\\\\\\\\\\\\	TICUTE OF IOL		
GS건설	산업재	응답	80 C	응답	응답	응답	응답거무	응답거부	응답거무	21,091	47,072	1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GS리테일	필수소비재			무응답	DOE!	E O E L	DOE!									
GS홈쇼핑 *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JB금융지주	금융	무응답		05'	0=1	05'	051/1)	051/1)	BC=:		100		\(\(\tau_0\) = 22	Tiellat		
KB금융지주	금융	응답	-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무응답	17,194	109,060	1	VAR S1, S2	절대량		
KCC	산업재	응답	78 C	응답	응답	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842,865	335,819		VAA S1, S2	절대량		
KT	통신	응답	99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1,038,510	13	VAA S1, S2, S3	절대량		
KT&G	필수소비재	응답	-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L)	응답거부	응답거부	_	_					
KT스카이라이프 *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LF (구. LG패션) *	선택소비재	_		무응답	무응답	응답(L)	응답(L)	응답(L)								
(주)LG	산업재	응답	91 C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무응답		1,635,920		VAA S1, S2, S3	절대량		
LG디스플레이	IT	응답	88 B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4,037,669	3,085,961	1	VAA S1, S2	원단위		
LG상사	산업재	응답	비공개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LG생명과학	제약건강	응답	92 C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5,749	51,090	4	VAA S1, S2, S3	절대량		
LG생활건강	필수소비재	응답	80 C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L)		6,021	36,467	5	VAA S1, S2, S3	원단위		
LG유플러스	통신	응답	91 B	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6,844	994,171	9	VAA S1, S2	원단위		

## 부<mark>록 VI</mark> CDP 2014 Korea 250 기업별 현황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 🗯 3년 이상 연속 미응답

										<b>票</b> 验	影響			
기업명	কা ন	立卫 이0	삼	2013	2012	2011	2010	5009	2008	Scope 1	Scope 2	Scope 3 보고 수	<u>보</u> 미 K 0	감축목표
LG이노텍	Π	응답	77 B	응답	응답(L)	응답	응답거부			27,406	317,321	10	VAA S1, S2, S3	절대량
LG전자	선택소비재	응답	100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378,993	884,874	13	VAA S1, S2, S3	절대량
LG하우시스	산업재	응답	79 C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47,512	75,845	1	VAA S1, S2 VAR S3	원단위
LG화학	원자재	응답	99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거부	응답거부	4,652,160	2,466,160	12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LIG손해보험	금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L)	응답(L)	응답(L)	응답거부						
(주)LS *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LS산전	산업재	응답	77 C	응답	응답	응답	응답거부			259,422	26,560	2		원단위
NC소프트 *	Π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	응답(L)						
NHN	П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거부					
NHN엔터테인먼트	선택소비재	무응답												
NH농협증권	금융	무응답			무응답	응답	응답(L)							
OCI(주) ¥	원자재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L)	응답거부	응답					
S&T중공업 *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SBS *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SBS미디어홀딩스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SFA *	П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SK C&C	Π	응답	80 B	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368	25,423	6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SK 하이닉스	П	응답	100 A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응답(L)	응답	1,925,483	2,568,824	13	VAA S1, S2, S3	절대량&원단위
SKC *	원자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SK가스 *	에너지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SK네트웍스 *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SK브로드밴드	통신	응답	비공개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SK이노베이션 *	에너지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SK(주) *	산업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거부	무응답					
SK케미칼	원자재	응답	84 C	응답	응답	응답	응답(L)			408,424	72,975	1	VAA S1, S2	절대량
SK텔레콤	통신	응답	90 B	응답	응답(L)	응답	응답(L)	응답	응답	7,375	700,588	7	VAA S1, S2	절대량
SL *	선택소비재	무응답		응답거부	무응답									
SM엔터테인먼트 *	선택소비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S-Oil	에너지	응답	96 A	응답	응답	응답(L)	응답거부	응답거부	응답거부	6,398,824	894,318	6	VAA S1, S2, S3	절대량
STX팬오션	산업재	무응답		응답거부	응답	무응답	응답거부		무응답					
심텍	자발적참여	응답		응답	응답					7,974	65,360		VAA S1, S2	절대량
유영섬유	자발적참여	응답	비공개											
한국동서발전	자발적참여	응답	76 D	응답	응답					43,120,843	87,145		VAR S1, S2	원단위
한국철도공사	자발적참여	응답		응답	응답					688,995	1,082,459		VAA S2	원단위
한화그룹	자발적참여	응답	비공개	응답	응답									
SK건설	자발적참여	응답	91 B							8,685	17,863	2	VAA S1, S2, S3	절대량

#### 1. 응답

- **응답(L)** : 응답지연, 평가 및 분석에 미 반영

#### 2. 점수

- 공개점수 75점 이상, CDP 제출 시, "Public"을 선택한 기업의 공개점수 및 성과밴드 표기
- 비공개: 획득한 공개점수와 상관없이, CDP 제출시 "Non-Public"을 선택한 기업
- "-": CDP 2014에 응답하였고, "Public"을 선택하였지만 획득 점수가 공개 기준(75점) 이하인 기업
- 공란: CDP 2014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
- 평가 신청 기업 점수만 공개

#### 3. 검증

- VAR: 검증/보증 보고, "검증 완료" 또는 "진행중인 경우 작년 문서 첨부"를 선택하였으나, 실제 평가 가능한 검증 의견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첨부된 문서가 CDP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VAF: 검증/보증 진행 중 (첫 해). 검증 진행 중이나 올해가 검증을 받는 첫 번째 해 이므로 검증관련 문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 VAA: 검증/보증 승인. 보고연도 검증의견서 또는 지난해 문서를 첨부하였고, 해당 문서가 CDP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S1**: Scope 1 배출량 검증
- **S2**: Scope 2 배출량 검증
- **S3**: Scope 3 배출량 검증





#### **CDP Contacts**

**Sue Howells** 

Co-Chief Operating Officer

**Daniel Turner** 

Head of Disclosure

James Hulse

Head of Investor Initiatives

Antigone Theodorou

Director, Global operations

**CDP** 

40 Bowling Green Lane London EC1R 0NE United Kingdom

Tel: +44 (0)20 7970 5660 Fax: +44 (0)20 7691 7316

www.cdp.net info@cdp.net

**kosif Contacts** 

장지인

위원장

양춘승

상임부위원장

송호상

부위원장

정해봉

위원

이종오

사무국장

김태한

연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2

천마빌딩 707호

Tel: +82 (0)2 738 1142 Fax: +82 (0)2 738 1143

www.kosif.org korea@cdp.net CDP 한국 자문위원회

장지인

위원장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이병욱

세종대학교 교수 전 환경부 차관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유승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

허탁

건국대학교 교수

양춘승

실무위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정해봉

실무위원

에코프론티어 대표

